

소학생

★ 59호 ★



Kim ©

야협 발행

265

7월치

앞으로 앞으로

尹 石 重 誠 曲

동 무 동 무 우 리 동 무 앞 으 로 앞 으 로
 소 도 말 도 바 두 기 도 앞 으 로 앞 으 로
 나 - 란 히 발 물 맛 취 앞 으 로 앞 으 로
 잠 잠 리 도 나 - 비 도 앞 으 로 앞 으 로
 한 - 눈 물 팔 지 말 고 앞 으 로 앞 으 로
 해 도 달 도 구 - 림 도 앞 으 로 앞 으 로



음식의 내력

① 오래 옛날 사람들은 나무열매와 풀잎을 따 먹고, ②게구미나 말뚝이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 먹었을 것이다. ③그 후 여러 가지 무기가 발명된 뒤에는 노루나 소, 말, 양과 같은 큰 동물을 잡아 먹고,



④내나 비야에 나가서 불어, 송사리, 조개, 새끼 같은 물고기로 잡아 먹었을 것이다. ⑤불이 발명되자

적은 모두 날로 먹고 병에 걸려서도 먹었고, ⑥물에서 저절로 나는 것만은 먹고 갈 수가 없어 동물을 거르고 식물도 자기 손으로 가꾸게 되었다. ⑦그러나 인구가 불어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져서 오늘날에는 벼와 밀 A나 B나 라는 화학적 식량까지 발견되었다

소학생

1948년 7월 1일 발행

59 호 7 월차

차 례

소설·봄의 노래...정인택(7)
 소설·소년 활극지...박대원(20)
 소설·장길마귀주라미...이휘영(19)
 풍요·어두나루...권오(25)
 풍요·장마미계인날...현대웅(5)

★소년과학사...홍이섭(24)
 ★당원들은 이렇게...박동석(13)
 ★일일되었나?
 ★근로회장과 포부...조복성(27)
 ★적구요란 어떤곳...이덕봉(4)
 ★농촌원 구경...주요섭(15)
 ★지렁이의생활...
 ★작물재배...
 (32)
 (15)

재악보...윤석승·윤극영(2)
 피치피치·윤석희의대피...
 (2)
 화보·세계각국의 옷...
 (17)
 그림해거·사동지...김순환(22)
 만화·독봉이...이영준(43)
 만화·과학공부...민복이(37)
 만화·기둥이씨...권모(37)
 새소식(28)★소학생작품집(35)
 이상모교다...
 (18)
 그림속담...
 (15)

★우미 학교 작품★
 서울 광경 학교지...
 (38)

○구공단재 이용법...
 (10)
 ○우유병은 깨끗이...
 (12)
 세계적일(6)★소년지식...
 (19)
 최덕태용(40)★누가많은가(40)
 최희박사(40)★한말박사...
 (23)
 ○중적이논인형...
 (41)
 ○소학생구락부...
 (42)
 ○만들고나서...
 (42)

★그림 그리실 분★
 김현웅·김유환·김기창
 김희환·조병덕·최수섭
 권장·김희환



그림·조병덕

제주도란 어떤 곳

서울 숙명 여자 대학 교수

이 덕 봉



제주도는 조선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요, 조선에서 제일 큰 섬이요, 목포에서 88 해리(海里) 떨어져 있는 외딴섬입니다. 동서가 2백 리, 남북이 백리나 되며, 추자열도(楸子列島), 우도(牛島), 가파도(加波島), 마라도(摩羅島), 비양도(飛揚島) 등, 크고 작은 섬 36 가량이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30만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섬 가운데에는 조선에서 들레로 높은 한라산이 솟아 있는데, 제주도 전부가 이 한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라산은 죽은 화산(火山)입니다. 온 산이 현무암(玄武岩)이라는 시꺼먼 바위로 되었고, 산 꼭대기에는 백녹담(白鹿潭)이라는 들레가 있어 떠 되는 호수가 있으니, 이것은 옛날에 불을 내뿜던 분화구(噴火口)입니다. 온 산이 바위로 되었을 뿐 아니라, 들이 수 없이 많고 흙도 화산이 터질 때에

풍겨 나온 화산재로 되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산 골짜기에서는 갑자기 홍수가 지다가도, 비만 그치면 물은 곧 흙 속으로 스며 들어 가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는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렵고, 바닷가에 와서야 겨우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산 중턱에서는 넓은 땅이 많지만, 물을 얻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바닷가에만 많이 모여 삽니다.

이 섬은 남쪽에 있는 만큼 기후가 매우 따듯합니다. 그러나 이 섬의 남쪽과 북쪽을 비교하면 남쪽이 더욱 따듯하여 서리가 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귤나무와 따듯한 곳에만 나는 식물이 적 많습니다. 예를 들면 쇠고비, 쇠귀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사철나무, 등벚나무, 마삭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남쪽 산 속에서는

포고(버섯 이름)를 재배하는 곳이 여러 군데요, 사철 꽃이 많기 때문에 양봉(養蜂)도 상당히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읍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올라 가느라 하면, 바다 가까운 곳에는 먼저

이 쌓아 놓은 밭대기들이 벌려져 있고, 다음에는 밭과 소를 파 기르는 절편한 넓은 들이 있고, 더 올라 가면 나무가 무성하고, 다시 더 올라 가면 세찬 바람과 찬 기운에 부대껴 바스러진 관



목(瀧木)과 조리대(笹竹)가 나는 곳이고, 꼭대기 가까이는 고산식물이 나는 곳입니다. 이 고산식물 중에는 화분에 심어 놓고 보기에 훌륭한 꽃꽂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벚꽃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식물학자들은 이 벚꽃의 고향이 어떤지 몰라서 이곳저곳 찾아 다니다가, 십여 년 전에야 이 벚꽃의 고향이 제주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저쪽의 가운데 땅에는 구멍이 셋이 뚫리고 선인(神人)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양을나(良乙那), 둘째가 고을나(高乙那), 셋째가 부을나(夫乙那)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분들은 산에서 자낭과거와 바다에서 꼬기 갈기로 일삼더니, 하루는 바닷가에 나무껍질 하나를 등실등실 떠 왔습니다. 이상히 여겨 열어 본즉 푸른 옷입은 석사 세 사람과 하얀 흰 시렁이 나오고, 음악과 거와 갈이와 곡식 종류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까. 세 선인을 각각

색시 하나씩 데리고 돌아가 밭 갈고 소 길러 농사를 지어 먹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남문 밖에 한 오리쯤 가면, 세 선인이 나오던 삼성혈(三姓穴)이라는 구멍이 있고, 제사 제내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로 시작된 제주도에는 가지가지의 이상한 풍속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비가 많이 올 뿐 아니라 바람도 매우 세차서, 지붕에는 굽은 바로 마치 그들과 같이 종종히 엮어 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집집이 들담을 쌓았을 뿐 아니라, 밭에도 굳베 굳베 들담불을 쌓아서 멀리서 보면 바둑판과 같이 보입니다. 또는 조선 말(馬)이 대단히 많고, 소도 있는데 이 말과 소는 육지 (제주도에서는 조선 본토를 육지라고 부릅니다.)에서와 같이 고삐를 매서 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올라 가느라면, 이곳 저곳에 소와 말이 수십 필씩 떼를 지어 마음대로 뛰어 다니는 것입니다. 광말로 말과 소의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과 소는 제각기 그 임무를 알기 위하여 귀나 울렁어새와 화일(火

동요

장마비 개인 날

권태웅

활짝 장마비

개었습니다.

새빨간 봉선화

눈부십니다.

뽕뽕 매미들

울어립니다.

인젠 장마비

개었습니다.

잠자리도 좋아서

날라립니다.

우리들은 꼬기잡이

개을갑니다.

(그림·정현웅)



印)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산 속에서 제 멋대로 새끼를 낳아서 자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 한 수효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와 말은 산을 헤매이되, 이 산에는 범이 없기 때문에 (이 섬에는 범판 없을

뿐 아니라 육지에 흔한 개치와 개재도 없습니다.) 새끼를 낳는 일은 없습니다.

봄철이 되면 밭에 제를 뿌릴 후에 말과 소 수십 필을 밭으로 몰아 넣고, 능부가 소와 말을 몰면서 기러한 노새를

부습니다. 또 농사꾼들의 옷에는 풋감물을 붉으죽죽하게 들여서 입기 때문에, 더럽지도 않고 질기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는 개 가죽 관과 개 가죽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섬에는 바람이 많고 물이 많을 뿐 아니라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많습나다. 그래서 이것을 삼다(三多)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섹섹하고 부지런하고 용감스러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도 여자는 참으로 용감스럽고 부지런합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이라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그와 반대로 대개 여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도리어 남자가 집 안에서 잔일을 합니다.

다. 그래서 장터에 가 보면 팔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여자요, 밭에 나아가 농사짓는 때도 남자에 지지 않으며, 특히 바다물 속에 들어가 전복과 소라 등속을 따는 해녀(海女)는 전부 여자뿐입니다. 이 해녀는 벌써 열 살 가까이 되면 바다에 들어가 해엄치기와 잠수질 배우기를 시작하여, 18,9세가 되면 당당한 해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세찬 바람과 노란 물결과 싸우면서 몸을 단련하기 때문에, 체격이 발달되고 몸이 건강합니다. 매일 한번 혹은 두 번씩 조수가 밀려 나아갈 때면, 한 손에는 뒤움박에 구역을 매단 "깨알구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손에는 전복 따는 활을 들고 몸에는 간단한 해수욕 옷을 입고 눈에는 물안경을 쓰고 험한 바위 위로

성큼성큼 걸어 가다가 바다로 뛰어 들어, 푸른 물결을 박차면서 멀리 헤엄쳐 나아갑니다. "깨알구럭"을 불에 따워 놓고 몸을 거꾸로 곤두박질을 하면 바다물 속으로 들어가, 40 초 동안 전복과 소리와 미역과 다시마 등속을 따 가지고 불끈 솟아 올라, "깨알구럭" 속에 집어 넣는 뒤움박을 끌어내고, 잠깐 숨을 들리는 동안에 얇으로 이상한 휘파람을 불니다. 조금 위에 또 이 모양으로 물 속에 들어 가기를 수십 번 하여, 한 40 분 내지 한 시간 동안 활동한 뒤에 밀려 들어 오는 흥흥한 물결과 함께 바닷가로 나아옵니다. 이 해녀들은 이 섬만으로는 활동할 일터가 좁다고 생각하여, 경상도, 황해도, 함경도로부터 멀리 중국 바다에 까지 나아가 활동합니다.

다. 바다로부터 짐복을 따 가지고 나오는 해녀는 한 짐의 이네요,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짐을 팔러하여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애기들을 어루만지며, 설에도 없이, 갖양태 넘어와 방곤 뜨기를 하며, 혹은 말로로 김매러 나아갑니다. 어린 애기는 구럭이라고 하는, 대로 걸음하게 지른 그리 속에 넣어서 재워 둡니다. 어머니는 그 구럭 옆에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애기가 잠길 거리고 보게면, 구럭을 흔들흔들하여 다시 깨우고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어디 나아갈 때면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없든지 간에, 꼭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나아갑니다. 그러고 물을 짤 때도 결코 머리에 이는 일이 없고 꼭 물에다 지고만 다닙니다. (공)

22마 상식

세계 제일

- 오래된 나무...남양카나리아 군도(群島)에 있는 용혈수(龍血樹)로 6,000년 이상이나 되었으며 여기서의 빨간 물감을 뽑아낸다.
- 깊은 호수(湖水)...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호수로 깊이가 1363미터다.

높은 호수...남아메리카에 있는 치치카카 호수로, 38 키로메터나 되는 높은 산 위에 있다.

얕은 호수...예수 크리스토퍼시 남으신 곳으로 유명한 에르샤렘 근처에 있는 사해(死海)로, 수면(水面)이 바다 수면보다 394미터나 얕은 곳에 있다.

무선 전신탑...독일에 있는 나우엔 무선전신국의 탑으로 높이가 260 미터다.

높은 산...인도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에베레스트산은 높이가 5,5 마일로 세계 제일이다.

깊은 바다...제일 깊은 바다는 비올빈에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랜 해협(海淵)인데, 깊이가 6,7 마일이나 된다.

봄의 노래 ③

정 인 택
그림 · 김 의 환

(1)

동호는 최 진 사람 모양으로; 의무로 일들을 가리고, 뒷글목만을 골라 떼져, 얼어 붙은 청계천(淸溪川)가로 내려 갔다.

뒤돌아치는 북풍이 살을 에이는 듯했으나, 찬득 흥분한 동호는 무슨 줄도 몰랐다. 좌 좌 맑은 분에 찬 바람이 오 리리 시현할 지경이었다.

동호는 얼음을 끄고 찬 물 속에 손을 담갔다. 비껴진 때가 아프기도 했거니와, 온 몸에 소름이 쭉 끼치도록 손 끝이 재웠다.

물에 젖은 손을 그대로 이마에다 갖다 대었다. 쓰라리다, 손에 흙 섞인 시멘트 피가 붙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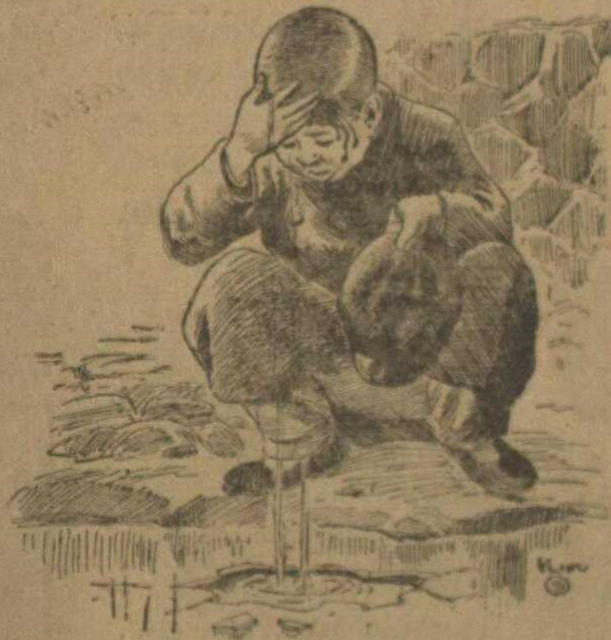
한참 정신이 아찔하는 듯했으나, 동호는 꼭 참고, 이번엔 물을 훌쩍 찍어 입 가의 피를 씻었다.

세수를 마치고, 머리와 옷에 묻은 물을 털고 일어선다, 겨우 겨우 정신이 오는 듯했다.

무슨 무거운 꿈을 꾸고 난 뒤

같았다. 정신이 얼떨떨했다. 자기 몸이 아직도 그 꿈 속을 헤매이고 있는 듯도 싶고, 그런가 하면, 이번엔 모두가 거짓말인 것 같은 착각(錯覺)도 느낀다.

오싹 추위가 스며 들었다. 동호는 오들오들 몸을 떨었다.



문득, 남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동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서, 단숨에 길 위로 뛰쳐 올라 왔다. 다음엔, 이러구 어떻게 집에 가나……

그것이 걱정되었다. 금방 정신

이 번쩍 나는 듯했다.

세수하다 말고 집을 나온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된다. 편 일인가 해서, 이리저리 찾아 다닌 갓난이의 모양이 눈에 서연했다. 동호는 얼른 작란 마음을 버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길 가 강사저늘은 벌써 가게 내일 차비를 처리느라고 부산하다. 그 사이를 훑고 걸음을 계속하던 동호는, 문득 이저의 영대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저식아,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녀. 변 언이다 기본 적격야. 개구멍 받아야……

동호는 또 봄이 부르르 떨었다. 추워서 그런 것도,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다. 까닭 모를 슬픈 생각이 온 몸을 뚫 타누르기 시작한 때문이다.

……정말일까?……

……아냐,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만……어무리 그 자식이 거짓말쟁이거로서니, 그런걸 가지구……

……모두들 날더러 이미 지 많았다구, 눈하구 코는 아주 그때루 마웠다구는 그러는데……

동호는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걸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발만 뛰어 놓으며,……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갈피를 찾을 수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귀해지고 돌
어가도 끝 없는 어둠만 계속되는
암흑(暗黒)의 세계와도 같았다.

(2)

오직 심란할 뿐이었다. 누구를
찾아갈 생각도 나지 않았고, 겁
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다.

그러자, 이번엔 시장까지 섞
인 추위가 엄습해서, 동호는 그
만 몸이 바짝 움추러 드는 듯이
느꼈다. 가변운 현기증까지 났
다.

동호는 저도 모르게 걸 한 열
아침 햇살이 비쳐오는 들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걸 가에 쫓그리고 앉았
으려니까, 자기 생각에도 몹씨
자기 끝이 쳐망해 보였다. 불쌍
해 보였다.

……거지 새끼줄 알겠네……

역지로 기운을 차려, 고개를
쳐드니까, 바로 등 뒤 골목 안
에서 맛 있는 고깃국 끓는 내기
풍겨 나왔다.

어느 틈엔지, 떡 장수, 밥 장
수 아낙네들이 주욱 늘어앉아 불
들을 쪼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가 떡 버티고 앉아, 해장국을 주
룩주룩 마시고 있는 사람도 드문
드문 있었다.

땀속에서 고르륵 소리가 났다.

동호는 부지중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마칠 채 살
돈이 들어 있었다. 동호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밥장수 앞으로 다
가 갔다.

밥장수 아주머니는,

……이런때 을 학생이 아닌
데……

그렇게 생각 했는지, 의심스러

운 눈초리로, 결상에 앉는 동호
의 모양을 유난히 바라보더니,
동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슬
가락을 상 위에 내어 주며,

“학생, 어디서 싸웠군 그래.”

빙그레 웃어 보이었다.

“네?”

“사내가 싸울 땐 싸워야 러지
만……저렇게 눈두덩이 붓고,
입술가 터지구 했으니, 부모님
이 보시면 오죽 맘이 아프실라
구. 학생 겁이 시골이유?”

아아노……하려다, 동호는 얼
른 고쳐 생각하고, ”

“네.”

외면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말
았다.

밥장수 아주머니는 풍노 위에
엎힌 남비에서 콩나물 국 한 그
릇을 듬뿍 떠가지고,

“학생, 자아, 뜨거운 국버덤
마시구……무척 시정했던게지.
눈이 썩 했구면” 다정스럽게 권
해 주는 것이었다.

“반찬은……뭐가 좋을까?”

동호는 먹기에 바빠, 채 대답
할 여유도 없었다, 한참만에 겨
우 숨을 돌리고,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좌우를 돌아보았다. 아무
도 자기를 주의해 보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은, 학생이……”

밥장수 아주머니는 말 끝마다
입버릇인 듯 “학생, 학생”하며,
잔잔 망서리는 듯하더니,

“학생이 마수거리니까, 편옥
값만 내어. 생선 지집허구 북
어는 덤으루 주께. 희여밀축
허게, 참 잘두 생겼네. 학생
은 아마 넉넉하게 지내는 겁

이뿐인게지, 학생이 이런때 하
밥 사 먹는줄 알면 부모님 입
이 조음 언짢으실라구, 학생,
고향이 어디지?”

동호는 아무테나 생각 나는데
모 주서뵈까 하다가, 차마 영중
한 거짓말까지는 할 수 없어, 웃
들은 체하고 대답을 안했다.

“내 자식놈두, 죽지 않구 싶었
으면 꼭 학생만 헐텐데……학
생, 을에 몇살이지?”

“열……네살에요.”

정말은 열 세살이나, 너무 어
티달까 봐서 한 살 보태어 대답
했다.

“그 애가 살았으면……한 해,
두 해……, 학생보덤 한 살 위,
열 다섯살이로군.”

“몇살 적에 죽었에요?”

“몇살 적에 죽은게 아니라……
밥장수 아주머니는 무엇을 생
각했는지, 후우 한숨을 내쉬고,
“생이별(生離別)을 했다우, 죽
었는지 살았는지……그것두 모
르니 안타깝구, 원통하구……”

동호는 “생이별”이란 말이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른 알아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밥장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몹씨도 커

박 태원 선생 지은
역사 소설
이윤신 장군
李舜臣將軍

몇번 읽어도 좋은 소설. 위
인 이 충무공의 거룩한 일생
을 그린 감격 소설. 아직도
안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 김기창)

책값 100원

아협 발행

밥과 주스였기 때문에, 동호는
자야 노릇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도 없었;

“네에……”
선배답을 하고 부티나케 밥만
저 먹었다.

동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설
때까지, 좀 수다스러 보이던 밥
장수 아주머니는 웬 일인지 다시
는 말이 없었다.

동호도 말 없이 더운 물을 마
시고 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
며,

“얼라세요?”
하고 물었다.

밥장수 아주머니는 여전히 말
없이 앉았다가, 빈쩍 고개를 쳐들
더니, 한참이나 물끄러미 동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다. 뜻밖에도
그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 금
성글성 하였다.

동호는 몹시 당황하였다. 까닭
없이 자기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동호는 밥장수 아주머니의 이
같은 태도에서, 형용할 수 없는

압박(壓迫)을 느끼고, 공허히 마
음이 언짢아, 일론 그 자리를 피
하고 싶어졌다. 동호는 고개를
돌이키며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들었다.

“그만 두우.”

“네?”

“밥 값은, 그만 두우. 학생을
보니까, 자꾸 그 자식 생각이
나서 비감해지는군 그래, 학
생한테 밥 값 못 받겠어.”

밥장수 아주머니는 억지로 얼굴
에 미소를 띠어 보이는 것이나,
그 때모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
다.

“그래두……”

“고지적러긴 학생두…… 그만
두구 어서 가래니까…… 학생
한테 밥 값 안받았다구, 설마
내가 굶어 죽기야 헐라구……
그러구 학생, 이 담에두 배 풀
으거든, 언제든지 또 와, 응,
아무 걱정 말구……”

그래도 동호는 어쩔줄을 몰라

잠간 망서려었다. 그러자, 웬 노
동자 한 사람이 동호 옆에 와 떨
렁 걸터 앉으며,

“아주머니, 한잔 주시우, 어이
주어.”

그 바람에 밥장수 아주머니는
일론 그리로 고개를 돌리며,

“네, 네.”

동호에게는 눈 것으로, 어서
가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다.

동호는 돈을 도로 주머니에 처
넣고,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쯤 오다가 힐끔 뒤를 돌아
보았더니, 밥장수 아주머니는 텅
빈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동호
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호는 눈물 어린 그 쓸쓸한
표정이 몹시 인상적(印象的)이
어서, 한참 동안 잊을 수가 없었
다.

(3)

동호는 마약 포를 팔기 시작한
어느 극장 앞에 가서서, 잠깐 말



서리었다. 형태에게 끌려, 몇번 이런데 출입은 해 보았으나, 그러나 언제든지 앞장은 형태가 섰었다. 막상 자기 손으로 포를 사자니까, 적지 많이 가슴이 설배이는 것이다.

연극을 하는지, 영화를 하는지, 그것도 알 필요가 없었다. 동호의 목적은 아무데서나 좀 걸터 앉아 쉬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뿐이었다.

아직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때문에 당연히 학교 교실에 가 앉았어야 할 나이요, 차림차림인 동호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몇 사람 안되는 구경꾼이지만 그 속에 꼭 자기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 것 같아, 동호는 맨 뒷자리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죽였다.

어떻게 포를 샀는지, 어떻게 포 받는 색시들 틈을 빠져 들어왔는지, 동호는 거의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었다. 장터에서 밥을 사 먹고 나서, 겨우 기운을 차려, 종로 거리로 나와, 늘 형태와 같이 걸던 길을 무작정하고 더듬는 것만은 아나, 어디로 해서 어떻게 이 극장 문 앞에까지 왔는지, 그것은 까마아득한 옛일 같이 흐릿하게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오고 가는 행인은 많았으나, 모두가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형태의 말이 사실이 라면……모든 사람이 자기를 속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 것만 같아, 동호의 마음은 찬

없이 외롭기만 한 것이다. 그 외로움은 슬픔보다도 더 뼈저리게 어린 동호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는 것이다.

알고 싶었다.

나중에 오는 결과는 하여간에 우선 어느 것이 정말인지를 알아, 이 무서운 의혹(疑感)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누구한테 물어야 좋단 말이나.

집안 사람에게,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일 수도 없거니와, 물었댔자 진실을 알려 줄 까닭은 없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화안한 사실이다.

그러면? 다음엔 능안 아주머니가 생각 났다. 그러나, 능안 아주머니도 집안 사람과 거의 다를바 없는 분이다.

“에끼 이 녀석. 누가 그런 미친 소릴 러디? 그걸 또 끈이 들구, 그래 시무룩해서 나한테와 묻는단 말이나? 원 별소리가 다 많다……”

사내 같은 괘괄한 목소리로 능안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도 뼈어난 노릇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누구, 누구 하고 손을 꼽아 보나, 대답은 늘 한 가지, 모두 어머니 아버지 편이었지, 자기를 위해 사실대로 얘기해 줄 사람은 없었다.

어느 때 화결 안을 이것 저것 기웃거리며 일 있는 사람 모양으로 돌아다니다가, 동호는 문득 주춤하고 발을 멈추고,

……형태!……

정계 쪽을 바라보며, 입 밖에 내어 소리칠만 하였다.

이건 참 심상

구공탄 재의 이용법

구공탄 재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에다가 무비누를 조금 섞어 가지고, 석분 대신 그릇 닦는데 쓰면 좋습니다. 가루가 고오니까 그릇도 칭하지 않고 깨끗이 닦아집니다.



확실증거는 많았으나, 거드머리며 정계를 올라가는 소년의 뒷모양이 꼭 형태 같았던 것이다.

그 순간 동호는,

……울지, 저 늬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해 내었다.

이때 여태 그 생각이 안났던고 싶었다. 자기가 정말 개구멍받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알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에게 얘기해 줄 사람은 형태 뿐이었다.

형태에게 라면, 몇몇하게 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도 한 번 그 말을 입 밖에 내일 이상,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동호는 미친 듯이 정계를 뛰어 올라가며, 형태를 찾았다. 아랫, 상창, 사창……옥상(屋上)까지

우루 불았으나, ……그러나 헛수
고였다.

형태가 아니었었는지, 혹은 일
부의 몸을 감추었는지, 백화점
안에는 형태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이빨을 알았더라면, 그 새
끼, 짐이나 알아 들을. ……

형태가 있을만한 곳, 형태가
늘 다니던 곳, 거기를 찾아 볼 수
밖에 없다고 동호는 백화점 뒷문
을 나서며 생각하는 것이었다.

거리엔 바람이 몹시 잦다.

동호는 바로 전신을 떨었다.
심혈이 있는듯 골치가 멍하고,
오한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꼭 참고 동호는 걸었
다. 어찌, 그저께까지, 형태와
이제를 나란히하여 놀러 다니던
그 길, 그 고장을.

그러는 사이에, 동호의 발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이 극장 문
전에 다다를 것이다.

우루루 사람들이 물러 들어 오
기 시작하였다. 문을 여닫을 때
마다, 바깥 찬바람이 왈락 따라
들어 왔다.

동호는 발을 뚱뚱 굴러 본다.
손을 맞부벼 본다. 그러나 오한
은 점점 심했다. 이가 딱딱 맞부
딛도록 온 몸이 떨던 떨렸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 보
았다. 손에 닿는 이마가 불명이
같이 뜨거웠다. 눈 앞이 빙빙 들
고, 정신이 아찔했다.

“이이구머니.”

옆에 앉았던 여자가 소스라치
놀라는 소리까지는 동호도 확실
히 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

“병이 난제로군 그래.”

“누구 같이 온 사람 없소?”

“빨리 사무실로 데려 갑시다.”

그런 소리들이 생생 귀 옆에서
들리는 듯 마는 듯하였다. 동호
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대로
의자에서 차디찬 마룻바닥으로

뜨그린채
굴러 떨
어친 것
이다.

(4)

무엇인
지 처근
하고 이
마에 없
히는 바
람에, 동
호는 번
쩍 눈을
떴다.
바로 눈
앞에서,
낯서른

얼굴들이 일현자였다.

술 내가 불연 코를 저른다. 미
리가 무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
었다.

“음지, 정신 제했구나.”

속중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
렸다. 동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가 다시 뜨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자기 주위를 에워 싸고 있는,
낯서른 얼굴 중의 하나였다.

“아, 악.”

동호는 의미 없이 악을 쓰고,
뛰쳐 일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억센 손이 그것을 타늘었다.

“가만 있어, 아직 일어나지 말
어.”

동호는 다시 긴 의자애가 리
스며지며,

“여,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었다.

“사무실야 아무 걱정 말구 가
만히 쉬워 있거라.”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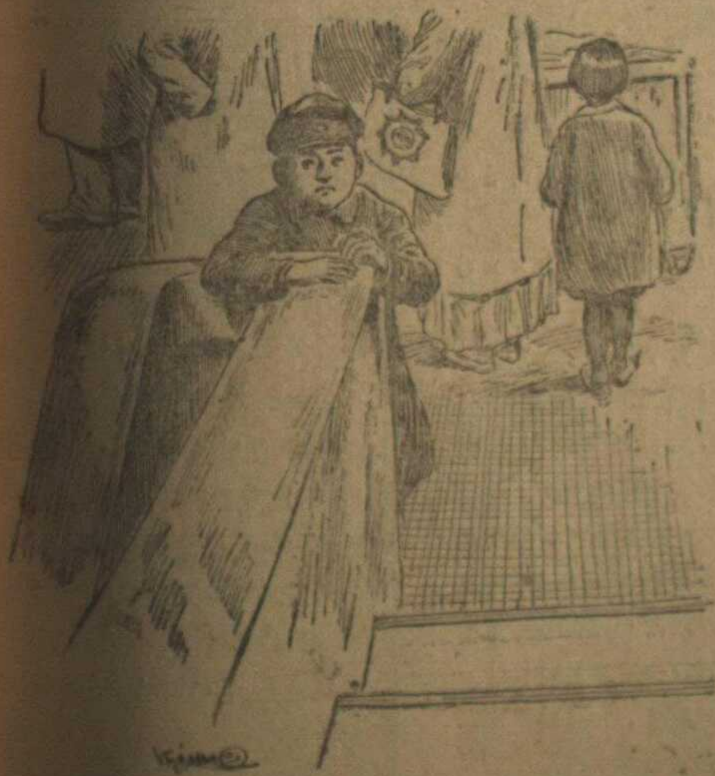
동호는 누운채 천천히 눈을 들
러 보았다.

(출마관 필장에 매어달린 상패
미아, 가지각색 의복 영화 포스
터여가 붙어있는 울긋불긋한 벽,
천화만 놓여 있는 형 미인 책상,
그리고, 커다란 화분에 이글이글
술불이 피어 있는 흡마관 방……
바로 그것은 극장 사무실이였
다.

동호는 이에서 저기가 서거 하
누어 있게 되었는데가들 겨우 제말
을 수 있었다.

“미, 미안합니다.”

동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온
심스러운 표정을 약간 펼 사무실
들에게 지시했다.



“그래, 어서 누어 있어.”

“네.”

“언제 좀 덜하나?”

“네.”

이마에 얹힌 젖은 수건을 주던 사람이,

“필, 아직 두 열이 대단한데.”

그러면서 손을 잡아, 맥을 보는 모양이었다. 동호는 하는데로 내 마끼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한

집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괴로움이 더 컸다. 동호는 드디어 제 생각과는 반대의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미, 미안하지만, 집, 집에 좀 알려 주세요.”

“그래, 곧 알려 줄테니, 몇번 진지 말해.”

“중, 종로 오가 ……아니, 전화 있어요. 미안하지만, 전화

편 어머니가 오실거야.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가 오시면 ……

어지러운 머리본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동호는 사무원이 집으로 전화 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아 바랐다. (계속)

여러 분! 귀를 막아 막고 누어 있는 동호는 어떻게 될까? 전화를 받고 달려 올 어머니는 과연 동호의 근심과 칼이 구지람을 하실는지? 그리고 또 구구의 입으로부터 동호는 마을을 괴롭히는 그 형태의 육살을 알아낼는지? 곧이 들리지는 않 으면서도 의심아니할 수 없는 “개구멍밭이” 라는 말! 니컬루 록 점점 재미 있는 소설 **봄의 노래**! 다 같이 다음달 처를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편집 질)



글기 주르르 흘렸다.

“애, 울건 왜 울어. 너의 집이 어디냐, 머나?”

동호는 눈을 감은채 고개를 내저었다. 게 정신이 돌아 오고 보니, 잠깐 잊었던 두통과 오한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가까워? 어디냐? 말해 봐.”

“조, 종로 ……”

“종로?”

“오, 오가(五街) ……”

말이 자꾸 멎었다. 저절로 도리질이 쳐진다. 몸이 땅 속으로 끌려 들어 가는 듯이 어지러웠다.

중, 걸어 주세요.”

“전화가 있어? 그거, 잘 됐다. 진작 그런줄 알았더라면… 몇 번이지?”

“동대문 …… 동대문, ××××번!”

“××××번?”

사무원이 되물는데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동호는 사무원이 덮어 준 담부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딱 감았다. 필대로 되어라 ……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런 자포자기(自暴自棄)의 감정이 움직이었는데도 모른다.

…… 전화 걸면, 간난이가 …… 어머니 까 제심내 알릴테구 그러

이 7년 참 심상

우유 병은 깨끗이

우유를 먹고 나서는 반드시 병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대로 두면 우유 찌꺼기 병속에서 썩으므로, 우유 자체에서 다시 우유를 넣을 때 소독하느라 걱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찮은 일이지만 꼭 잊지 않습니다.

★ 발 명 이 야 기 ★ ③

망원경은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동 식

망원경(望遠鏡)은 오늘날 과학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먼 데 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 보여 줍니다. 멀고 먼 데 하늘이 별나라도, 망원경으로 보면 아주 가까울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장난이 공을 세우다

망원경은 17세기 초에 발명된 것인데, 누가 맨처음에 생각해 낸 것인지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란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화란의 밋델부두그란 곳에 사카리아스·안센이라는 안경 만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가게에 전열해 놓은 렌즈를 꺼내다가 노는데, 렌즈 두 개를 적당한 사이를 두는 법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에 재미 있다. 교회당 풍향계(風向計—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기계)가 이렇게 가까울게 보인다.”

다른 한 아이가 떠들어대니, 다른 아이들은 “나두 좀 봐.” 하며

서로 떼앗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뛰어 나온 아버지 안센은,

“무슨 짓들이냐. 렌즈를 꺼내다가 정난하면 안돼.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인제 파자두 안 줄테야.”

“그러나 아버지, 재미 있는 일이 있어요. 웬 일일까요. 저거 저 교회당 풍향계말이죠, 이것 보세요, 이렇게 가까울게 보이 거던요.”

“응 뭐? 야아 정말 이상하구나. 아니 이놈들 훌륭한 짓을 했는데. 이런 장난 같으면 압만 해도 좋아. 상으로 파자를 주마.”

하며, 금방 기쁜 얼굴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대로 렌즈 두 개를 적당한 사이에 들고, 교회

당 꼭대기에 달린 풍향계를 바라보니, 모두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훨씬 가까울게 보였습니다. 안센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큰 놀란 뒤에다. 거리(距離)를 재고, 렌즈 두 개를 세워서 맨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한 것입니다.

다른 발명가 두 사람

그런데, 맨 처음에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은, 위에 말한 안센 부자(父子)가 아니라, 같은 화란 사람으로 안경을 만들던 한 * * 릿과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역시 렌즈를 겹쳐 가지고 보고 있으려니까, 우연히 교회당 탑이 아주 가까워진 것에 놀랐는데, 그것이 시초가 되어 망원경을 발명하게 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 맨처음 발명가라고 전해지고 있는 사람에, 역시 화란 사람 켈스·베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망원경을 발명했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화란 사람이 발명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즉 1608년에 릿과세가 화란 성

과학 박물관장
조복성 선생 지은

곤충 이야기

우리 인류와 가장 인연이 깊은 곤충들이 이 책에 모조리 나옵니다. 그 생김새와 생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 해로운 점, 또 그

잡은 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재미 있게 적혀 있고, 그림이 부속 들어가서 참으로 귀중한 과학 애기책입니다. 첫 과 공부에 훌륭한 참고서.

해 값 150원 아협 발행



부에 망원경 제작의 특허권(特許願)을 제출하였으나, 벌써 오래 전부터 발명된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에게 망원경을 만들도록 부라하는 동시에, 그 만드는 법은 절대 비밀로 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화탄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이 망원경으로 적의 진지(陣地)의 형세를 멀리서 자세히 살피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캐내다

어쨌든 이 비밀이 누설이 되었는지 혹은 다른 발명가에게서 나

은 말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문은 어느 사이에 북구라과의 거리거리에 퍼졌습니다. 이태리의 물리학자(物理學者)로 유명한 가리레이는 1609년 7월 경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탄의 어느 안경장수가 요제 "요술경"을 발견했다는 데, 이것을 사용하면 먼데 것이 가까웁게 똑똑히 보인다는데, 어떻게 만든 것일까 하고, 재주가 뛰어난 가리레이는 여러 가지로 렌즈를 맞춰 꾸며서, 훌륭한 망원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가리레이도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

다. 특히 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처음으로 별나라의 비밀을 캐내고, 천문학(天文學)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은 가리레이입니다.

가리레이가 간단하고 조그만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본 것은 1610년 경인데, 그 때부터 인간의 지식이 매우 늘어 갔습니다. 그는 조그만 망원경으로 한 가지도 한 가지 어느 것이나 놀랄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달나라에서는 토끼가 떡 방아를 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과, 해에는 흑점(黑點)이 있는 것과, 목성(木星)에는 세계의 달이 있다는 것 같은 것은, 모두 그가 이 보잘 것 없는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리레이의 증명으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디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모두들 반대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웃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구는 끝이 없는 아주 넓은 것으로, 그 위에 산도 있고 내도 있고 들도 있고 동네가 있는데, 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지구야말로 우주(宇宙)의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리레이는 지구의 모양은 그런 것이 아니며, 공같이 둥글고 저 혼자 돌면서 도리를 하고 도는 것인데, 지구를 우주의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며, 토성(土星)이나 목성(木星)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신(迷信)에 사로잡혀 살아

오래 오래 서있으니, 얼마나 놀라고 있을 댔겠습니까. 가리데이 때에 여러 중심으로 도는 유성(遊星)은 지구 외에 화성(火星), 목성(木星), 금성(金星), 토성(土星), 이렇게 다섯 개만 알려져 있었습니 다. 그러나 몇 배 더 큰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관측하는 방법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천왕성(天王星), 해왕성(海王星) 같은 유성이 새로 발견되고, 우주 전체가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식물 채집

부디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도 가까워 왔습니다. 여름에는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속에 이 식물 채집도 한 몫 넣으십시오. 더위를 잊을만큼 재미 있고 또 몸에도 썩 좋습니다. 식물 채집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식물이 시들지 않게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흠뻑 빨아 들인 솥을 뿌리에 놓을 것. 둘째 뿌리까지 썩지 않고 지른 것인 때에는 물에 적신 할지면을 지른 데다 덮 것. 셋째 식물을 채집하는 통이나 상자 가 없을 때에는 뿌리만 종이로 감고 말고 신문지나 다른 넓은 종이로 전체를 폭 덮어 싸야 합니다. 이것은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 속 그림



천동인지 지동인지 모르겠다

하늘이 움직여서 나는 소리인지 땅이 흔들려서 나는 소리인지 등 모른다는 뜻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영문을 몰라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어리둥절 할 때 이런 말을 쓴다.

굽은 나무는 길마 가지가 된다

비틀어지고 구불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이 정작으로만 쓰 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구불 나무는 길마(길을 걸을 때 쓰는 안장)가지로 훌륭하게 쓰 이니, 이 세상에는 비뚤 물건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 소용히 말고 잘 이용하라는 말.



몽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꿈이 듣지 아니한다

메주가 무엇이고 또 이것은 몽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미 아 더 분다 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말이 라면, 흠뻑도 믿지 않는 비릇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쓴다.



아이 자라 어른 된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나이 먹어 늙은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처음부터 어른이나 늙은이는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순서가 있고, 또 무엇이든 하려면, 반드시 그 순서를 밟아 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림·김 의환)





10 이리와 여우 주 요 섭

“저기 개가 여러 마리 있다.”
하고 옥주가 손가락질 하는데 보
니 그것은 개가 아니라 이리였습
니다.

“야, 그건 개가 아니라 이리다
이리, 그 무서운 이리.”

“응, 그래?” 하면서 옥미는
바싹 철창 아래로 대들면서 이리
를 들여져라 하고 들여다 보았습
니다.

“이놈아, 내가 빨간 모자 쓴
아이였던달 이놈에게 내 바스케
트도 보여 주질 않을 것이고, 할
머니도 잡아 먹지 못하게 했을게
다.” 하고 옥미는 혀를 날름 했
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할머니를
잡아 먹었는지 안 잡아 먹었는지
그냥 시침이를 먹고 옥미를 마주
바라다 보고 서 있습니다.

“너희들이 늘 듣는 그 동화가
아주 엉터리 없는 얘기는 아니
다.” 하고 삼촌이 말씀했습니다.
“이리란 짐승은 옛날부터 사람과
는 원수다. 사람하고만 원수일
뿐 아니라 소, 양, 말 등과도 원
수다. 이리는 피가 많고 또 언젠
나 배를 지어 다니면서 잡히하기
때문에, 그 피레가 참으로 크다.
드 세계 각국에 널려있는 그 짐
승도 참으로 많다. 노시아, 시베
리아, 헝가리, 뉴웨이, 스웨덴 등
등에 특별히 많이 사는데, 이

놈들을 자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전 인류가 이놈들한테 놀
릴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
서는 오래 전부터 이리를 한 마
리 잡아오면 얼마씩 돈을 준다고
정부에서 현상을 걸어서 장려했
기 때문에 많이 잡혀서 인제는
영국에서는 이리 배가 그리 큰 문
제가 안된다. 이리가 한 마리 따
르 있을 적에는 아주 비겁한 것
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아주 치운
을 내고, 특히 겨울에 배가 고프
면 아주 물 불 헤아리지 않는 맹
수가 되지만, 그래도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불이다. 범도 불을 제
일 무서워하지만 아메리카에 사
는 이리는 유우롭 이리보다 몸집
은 조금 작으나 흉맹스럽기는 꼭
마찬가지다. 아메리카 대륙 횡단
기차는 한 주일이나 타고 가야
다 가는데, 그 기차 길 옆 노에는
이리가 많이 출몰한다. 그 이유

는 기차 승객들이 여러 날 가면
서 먹고 남은 부스레지나 고기
뼈 등을 차창 밖으로 던지면, 그
것을 주워 먹느라구,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드면 해오리가와
물고기가 배를 싸고 도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밤에 이리 배
가 배가 고프서 산에서 우는 소
리를 들으면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몸에 소름이 끼침다
고 한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은 일이
더 보죽하다.” 하고 광호가 그쪽
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이리가 아니라 여우라
다. 가까이 가 보면 노련내가 나
지, 응!”

“여우는 포도를 좋아하지만 못
아서 따지를 못하고 그까짓건 시
기만 한 것——.” 하고 광호가
이소프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땀
을 꺼내니까, 옥미가,

“여우가 닭을 좋아 하지, 포도
는 무슨 포도.” 하고 반박하는
것을 삼촌이,

“응, 포도두 싫어하는 것은 아
니겠지. 바로 여러 천 년 전에
순서 정 책에도 조그만 여우들이
모여서 포도를 먹는다.” 그 말이
있는 것을 보니, 옛날부터 포도
도 잘 먹은 모양이다. 그러나 닭



순 아마도 제일 좋아 할걸 그때
 서 람정수에게는 여우가 잠 질색
 이장. 여우는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서 사는데, 한 배에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아서 그 여우 새끼
 셋이 혼자서 토끼끼나 잡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까지는 꼭
 굴 속에 감추어 기른답니다. 여우
 는 세계 각구 없는 나라가 없고
 종류도 가지 각색인데,검정여우,
 흰여우, 회색여우, 분홍색여우,
 은색여우 등이 있는데,그 중 재미
 있는것은 북극에 사는 여우로 여
 들이는 털이 누우털고, 겨울에는
 겨울자 하얗게 변하지.”

“북극 곰처럼.”

“그래, 그래! 역시 보호색.
 동양 사람들은 여우가 사람의 화
 상으로 변하여서,여러 가지 장난
 을 친다고 믿는데, 그 중에도 꼬
 비가 아홉 개나 달린 구미호라는
 것은 그 조화가 무쌍하다고 하여
 여우한테 홀린다는 얘기가 매우
 많다. 그렇지만 해골을 쓰고 사
 람이 되느니 하는것은 믿지 못
 할 말이다. 또 여자들은 어우 꼬
 리로 겨울에 목도리 하기를 좋아
 하는데,그 중에도 은호라고 흰여
 우 꼬리를 가장 좋아 하져.”

오·락·실·대·답

—문제는 40페이지에—

(화덕매용)



(누가 많은가?)

일남이 살흔 두 마리
 이남이 살흔 마리



원 결장

그림 설명

추위, 더위, 비, 벌레 등의
 해를 막기 위해서, 또는 몸치
 장으로 사람들은 옷을 입습
 니다. 여러 분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는 여러 분이 사
 시는 곳에 따라서 틀리지요.
 옷은 기후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사시 장철 얼음 속에서 사
 는 북극 에스키모 사람들은
 물범이나 물개의 가죽으로 만
 든 털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추워서 털로 추위를
 막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첫째
 무명을 짜는 목화도 없고, 모
 직물을 만들 면양도, 또 누에
 도 없이, 단지 북쪽 바다에
 많이 사는 물범이나 물개의
 가죽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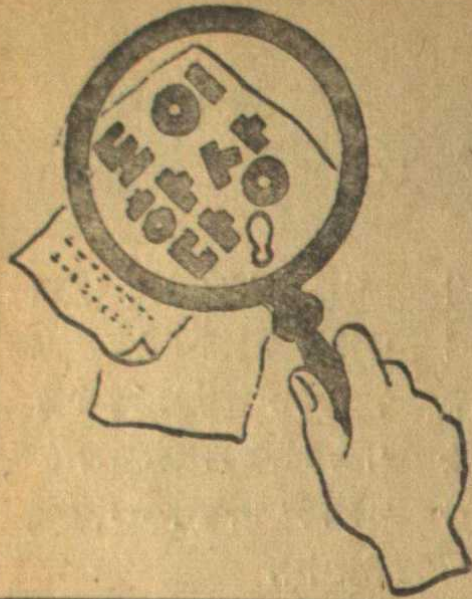
아메리카 본토에 사는 인디
 안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물
 소의 털을 많이 쓰지요. 그들
 은 옷이나 천막을, 물소 가죽
 으로 만듭니다. 대청양 북쪽
 언안에 사는 인디안들은, 나
 무 속 껍질 말랑말랑한 것으
 로 옷을 만듭니다. 동쪽에 사
 는 인디안들은 사슴의 가죽
 으로 만듭니다.

현대 사람들은 나무나, 석
 탄이나, 우유에서 옷감을 만
 들어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옷감들은 차례로 “레이용”
 “나이롱” “아탈라크” 라고 불
 리웁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은 거발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
 들은 면양을 길러 털을 깎고,
 이 털에서 실을 뽑고, 그리고
 이 실로 옷감을 짭니다. 또는
 목화를 심어서, 포근 포근한
 목화 송이에서 실을 뽑아 가
 지고 옷감을 짭니다. 또는
 삼을 심어서, 줄거리에서 나
 오는 실로, 배를 짜기도 하지
 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누
 예고치에서 비단실을 뽑아서,
 비단을 짜는 것이 있습니다.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가
 계에서 천을 떠다가 옷을 해
 입는 것이 보통이지만, 농촌
 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손수 산출할 뿐 아니라, 옷감
 까지도 대개 집에서 짜서 입
 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무
 엇무엇으로 옷감을 짜서 입는
 저 할 법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는
★대분수(大噴水)★

여러 분들은 공원이란 하면 코코다공원, 사직공원, 호창공원, 장충단공원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이렇게 작은 공원이 아니라, 아주 놀랄만큼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에로오스톤공원은, 길이가 1280 Km, 넓이가 1160 Km 나 되고, 조션이라 하면 큰 도(道) 하나

보다도 더 큼니다. 이 공원은 대부분 와이오밍주(州)에 있고 모두 화산(火山) 지방으로, 다른 공원에선 못보는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것이 많이 있어, 마치 신기한 나라를 구경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같이 넓고 이상한 것이 많아, 두 달이나 석달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걸어도, 또저히 다 볼 수 없다 하니, 그 얼마나 크고 이상한 것이 많은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공원은 높이가 2424m 가량이나 되는 높고 커다란 배(山)

들과 높은 높이 쌓아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같이 된 평야(平野)에 있고, 그 근처에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백 개 가량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 속에는 큰 시내가 많이 흐르고, 또 커다란 시가지(市街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깊은 산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온천(溫泉)입니다.

온천이라야 하나 둘 있는 것이 아니라, 4. 5천 개나 있으며, 그 밖에 자연으로 내뿜는 분수

가진 큰 도회에서 하루 너너하게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헐천의 하나만 있어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어느 집이 물을 막론하고 물을 끊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자이안트라는 간헐천은 일 주일에 한 번 뿜는 것인데, 그때 선 이것은 전에 것보다 더 높이 올라 가는 것으로 75,8m나 되고, 한 번 뿜으면 30 분 동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간헐천이 내뿜는 때는 그 근처에서 경경히

(噴水)가 수 백 개나 있으니, 세계의 온천이나 분수를 모두 모은 수보다도 더 많은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온천이 또 신기한 것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조션의 온천과 같은 그냥 땅 위나 개천 언저리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 높이 높이 분수모양 힘차게 하늘을 찌를 듯이 내뿜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은 간헐천(間歇泉... 시간을 정하고 그때만 내뿜는 온천)으로 월드·웨이스홀이란 간헐천은, 한 시간만큼씩 동안을 떠어 높이 45

m나 뿜어 올라 갑니다. 물론 그것은 찬물이 아니고 끓는 아주 뜨거운 물이므로, "식" 하고 소리를 내며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 가면, 사방에 온통 김이 서려 구름이 산을 뒤덮은 것과 같이, 하늘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불계 불계 김에 싸인다고 합니다. 이 분천(噴泉)은 한 번에 5분 동안 뿜고 그치지지만, 그 사이에 쉴 때는 물은 경경한 것으로 하루에 100만 석 가량이나 나오므로, 그만큼의 물이 있으면, 인구 30만 명을

4m나 뿜어 올라 갑니다. 물론 그것은 찬물이 아니고 끓는 아주 뜨거운 물이므로, "식" 하고 소리를 내며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 가면, 사방에 온통 김이 서려 구름이 산을 뒤덮은 것과 같이, 하늘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불계 불계 김에 싸인다고 합니다. 이 분천(噴泉)은 한 번에 5분 동안 뿜고 그치지지만, 그 사이에 쉴 때는 물은 경경한 것으로 하루에 100만 석 가량이나 나오므로, 그만큼의 물이 있으면, 인구 30만 명을



광집의 귀뚜라미

(스 타 알 · 지음)
이 휘 영 번역

내 동무 작크는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아주 조그마한 광판개가 램이 나서, 그것을 사려고 광 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입맛을 잃어 버린 어린이에게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달래기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도 탐스러운 광이면 아무리 병식에 누어 있는 어린이라도, 먹고 싶어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스름 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가난하게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한 일일꾼 같은 소년이 광 가게에 들어 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어머니가

광을 가져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하고 소년은 광집 여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광집 여주인은 점포대(店舖臺) 위에 올라가 배 파운드 짜리 광 덩어리를 넣어 두는 시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광을 하나 꺼내서 소년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 때에 내 동무 작크는 소년의 얼굴이 여위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소담한 광의 활짝 피어 올라 볼록한 모양과는 아주 반대였습니다.

“너 돈 가졌니?”

하고 광집 여주인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못가졌어요.”

하고 그는 광 덩어리를 볼루우스에 대어 꼭 쳐안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오셔서 말씀 드리겠어요.”

“그럼 어서 광을 가져고 가져라.”

하고 광집 여주인은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소년도 말하였습니다. 내 동무 작크는 거스름 돈을 받아 들었던 때였습니다.

사 가질 광을 포켓트 속에 집어 넣고, 그가 마약 나오려고 하였을 때에, 벌써 멀리 가 버렸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커다란 광을 안은 소년이, 그의 뒤에 우뚝히 서 있는 것을

○ 소년 지식 ○

★ 바닷물(海水)

바닷물 속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학자들이 분석(分析)해 보았더니, 일반 지상의 물과는 달리, 금은 등의 중금속(重金類), 희토류(稀土類), 마찰, 루비, 지름, 티슘, 화나중, 티타늄, 알루미늄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

러니까 전 지구의 중량(重量)의 7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바닷물속에서 금을 파낸다면, 실로 80억톤의 금 덩어리가 되며, 은은 그때는 확실히 얻을 수 있다 하나, 이것은 판 개와 채광 위의 이론일 뿐이라 합니다.

★ 피로한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음식
운동할 때에 힘이 많이 피로하

았을 때나, 또는 열감이 일어나 공부를 하여서 아주 힘이 노곤하고 피로하였을 때는, 꼭지레다 차려주는 가, 또는 몇 같은 것보다 수분이 많은 사과 등을 먹든지, 혹은 사탕물을 마시든지 아무튼 수분이 많은 것과 찬 것을 먹으면, 꼭 힘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힘이 피로하였을 때에는 몸에 있는 당분(糖分)이 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는 다시 보았습니다.

“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니?”

하고 광 집 여주인이 가 버린 줄만 알았던 소년에게 말하였습니다.

“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니?”

“아니예요.”

하고 소년은 대답합니다.

“이 광이 얼마나 좋지요.”

“그러면 어서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늦으면 길에서 놓고 온출로 생각하시고 꾸지람 하시지 않겠니?”

소년은 못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의 모든 주의를 반대로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광 집 여주인은 그에게서 가까이 가서 다정스럽게 그의 뺨을 톡 톡 건드렸습니다.

“무얼 생각하고 있어, 빨리 가진 않고.”

“주인 아주머니 노래 부르고 있는게 무어예요?”

“노래를 부르다니?”

“노래 부르는게 있어요. 들어 보세요. 크리 크리 크리.”

광 집 여주인과 내 동무 작크는 귀를 겨우렸었습니다. 그러

나 광 집에는 보통 있는 벌인 나그네 귀뚜라미들의 우는 소리 밖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새군요.”

하고 소년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잖으면 사과들처럼 광이 익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요.”

“아니야 애 이 바보야.”

광 집 여주인은 웃어대었습니다.



“귀뚜라미들이란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참이니까, 불길을 보고 좋아서들 부엌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야.”

“귀뚜라미요?”

하고 소년은 되 물었어요.

“그럼 크리크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단다.”

하고 광 집 여주인은 친절하

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환기로 빛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하며 그는 제 요구가 너무나 청난 듯하여 낮을 밝히면서 다가 옵니다.

“크리크리 하나만 질 주시면 여간 고맙지 않겠어요.”

“크리크리틀?”

하고 광 집 여주인은 놀라서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크리크리는 하나 해서 무엇하겠니? 집에 있는 놈들을 다 따도 쓸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주겠다만.”

“주인 아주머니 한 마리만 주세요. 꼭 한 마리만 주세요.”

하고 소년은 커다란 땀위로 땀기 없는 손을 모으면서 청합니다.

“크리크리가 집에 행복을 갖다 준단 말을 들었지요. 아마 한 마리만 우리 집에 있으면, 그렇게 슬퍼 하지는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우시지 않게 될 거예요.”

내 동무 작크는 광 집 여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이는 뺨이 잔뜩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여주인은 앞저마



○ 흰 머리

아들...어머니.

어머니...왜?

아들...어머니 머리에 흰머리가 났어요.

어머니...내가 하도 속을 썩어니까 나지.

아들...그럼 어머니도 활이버지 활이버 속을 두쳐 썩었군요?



어머니...? (서울 매동교 4년 이영가)

○ 불난 집

불난에서 급히 달려오는 사람에게
甲...“몇 번지에 불이 났습니까?”

乙...“번지고 뛰고 다 모르겠습니다.”



안 자락으로 눈물을 썼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 동무 작크도 앞치마를 입고 있었더라면 꼭 같이 눈물을 닦았을 거예요.

“그래 너의 어머니는 왜 우시니?”

하고 그 이상 더 말잡레를 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던 내 동무 작크가 불었습니다.

“외상 빛 때문이에요.”

하고 소년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무리 일을 하셔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 동무 작크는 소년을, 그리고 그의 품 속의 광도 함께 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소년에게도 또 광에도 입을 맞춰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참아 귀뚜라미를 만질 수 없었던 광집 여주인은, 부엌 방에 내려 갔습니다. 그는 남편더러 내 마리를 잡아 숨을 쉴 수 있게 주정에 구멍을 뚫은 상자 속에 넣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년에게 주

어, 소년은 기뻐하며 돌아 갔습니다.

소년이 가버린 뒤에 광집 여주인과 내 동무 작크는 굳게 악수를 하였습니다.

“착하기도 하지!”

하고 들이는 소리를 같이 하여 췌었습니다.

그러고는 광집 여주인은 장부를 꺼내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어머니의 외상이 적힌 페이지를 펴고 커다라게... 지



부가 매우 많았으니까요... 커다라게 줄을 제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지불(支拂)하였습.”

하고 써 넣었습니다.

그 동안에 내 동무 작크는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 포켓트에 있던 돈을 전부 종이에 썼습니다. 그 날은 마침 다행으로 그의 포켓트에는 돈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외상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과,

“당신은 장차 기쁨과 위로를 갖다 드릴 아드님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편지와 함께 귀뚜라미를 가지고 간 소년의 어머니에게 빨리 보내달라고 광 집 여주인에게 부탁 하였습니다. 여주인은 다리가 거대한 사환에게 주며 빨리 그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소년은 커다란 광과 귀뚜라미 네마리를 들고 그의 짧은 다리로는 도저히 광집 사환만큼 빨리 걸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 갔을 때,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바느질 감 위에서 눈을 들고 입술에는 기

쁘신 듯한, 또 안심 하신 듯한 미소를 머무시고 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가 가져온 네 마리의 까달 밀레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귀뚜라미와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없었더라면, 이 행복스러운 편화가 그의 어머니의 구차한 살림에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끝)

○ 피보와 절장이

절장이...“백 원만 내편 을 신수 할 바 드리지요.”

피보...“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 거요?”

절장이...“천만예요, 남의 주머니

에든 돈을 어떻게 잡니까?”

피보...“타하! 그만한 것도 모르

면서 어떻게 남의

신수를 알아 변한

말이요.”(수원읍내

어 명수)

X X X



일려 드리는 말씀

여러 분과 함께 우리 “소학생” 또 이번 여름 방학에는 위고, 그대실 9월지를 날마다 몰락하여 8월 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책을 세우고 있으니 커다라 주십시오.



25. 서동지는 금금해 라던 관이타 다람쥐를 반가이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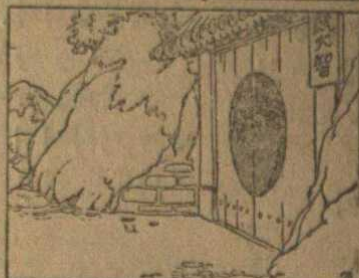
“자네 혼자 얼마나 속을 보았나?”
 “말 많소. 그 살팽이 너식을 속여 넘기느라 구, 아니 나오는 눈물을 짜내면서 잔신히 으멸했군요.....”



28. 다람쥐는 쥐를 손에 두 팔에 기대어 미끼를 들고 미끼를 던졌다. 그것은 물론 새끼를 유혹하는 살팽이였다. 이럴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무심코 있던 쥐들은 별안간 달려든 살팽이에 제 목숨을 망쳤다.



26. 서동지는 멧도 모로 코 꼬개까지 코덕이려, “큰일 날법인데, 자네 퍼니까 으멸 했지...” 다람쥐는 더욱 신이나서 “그렇습니까? 오다가 꽃간을 발견했는데 작정 열아문만 추려 줄소. 할무 떨어 올게...”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29. 다람쥐의 간사스런 피에 자기 수라 쥐를 해를 입은 줄은 알지도 모르고, 서동지는 그대로 일쪽을 지느리고 구슬산 팔배물이란 꽃을 팔았다. 그 꽃은 경치도 좋았지만, 살기에도 알았다. 그리하여 끝을 파서 집을 짓고 살림을 하였다.



27. 서동지는 다람쥐의 말을 믿고 수라의 난데코 힐끗 쥐를 열 명 몰아서 다람쥐와 같이 가게 하였다. 다람쥐는 앞서서 길을 안내하면서 속으로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큰 나무 밑에까지 오자 다람쥐는 쥐들을 보고, “여기 잠간 서 있어.”



30. 서동지는 그와 같이 일쪽을 편안히 자리를 잡게 한 다음, 먼저 지렁이를 땅을 파고 갈아서 농사에 씌우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할 미치는대로 다 같이 일하게 하고 끝으로 덕을 짓게 하니, 일쪽은 아무도 밟지 않고 밟지 않았다.

31. 서동지는 한 편으로 일쪽의 곡하밭, 손자밭, 동손자밭 되는 오글오글 하는 꼬마 쥐들을 모아 놓고, 글 가르치기에 하였다. 때날이 있으면 하술 천 다 저들 소리 눈여 띄우는데, 그 중에는 꼬박지리고 흐르는 눈, 장난 하는 등 가지 각색이다.



34. “소인의 살림살이가 대양 갑구할 것은 아시는 바이지만, 몹시 추운 지난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양식이 떨어져 처자식들이 굶어 늘어질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밤에 짐을 나섰습니다. 한군데를 가니까 큰 기와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32. 이와 같이 서동지는 작은들의 교육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소마하게 차원 쥐 한 마리가 서동지를 찾아왔다. 그는 서동지의 조상 때부터 일을 보아오던 친척이 쥐였다. 그 쥐는 집안 사정으로 소마 집안에 오는 것이었다.



35. “보아하니 꽃간에 쌀 섶나 쌓여 있음직 하였습니다. 그때 귀찮은 할 일을 알면서도 담을 넘어 꽃간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쌀독이 가득한데, 그중에서 두둑이 열려 있는 쌀독으로 올라가나 하코 넘어 들어 갔습니다.”



33. 친척이 쥐는 서동지에게 경을 하며, “그동안 찾아 뵈지 못 하와 죄송 만망이옵나이다.” 하고 인사의 말을 올렸다. 서동지도 반가워서, “아니 그대 소식은 어떻게 들어질 수야?” “황송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올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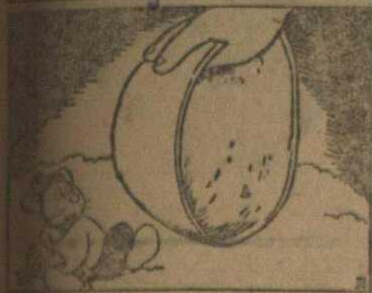


36. “그 두둑 안엔 쌀이 반쯤 밖에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던 소마만에 쌀 구경을 하는 타이오마, 우선 배를 채워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고 자루가 깨지도 두둑만 담았습니다. 이만하면 살았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쉼 없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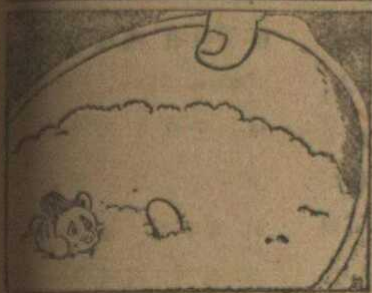




37. "그때서 밤이 짙어질
치러구 서글웠는데 자
... 이틀 어찌니까? 밤
에서 들어 올 때 발발
침이 있어서 쉬웠지만
나가려니 배이 미끄러
워 밤이 분절 암습니
다그리... 욕심이 피라
구 나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
캄했습니다.



38. "정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 한 열
흘 동안이나 감혀 지냈
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털크림 꽃잔 문 여
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집 식모가 바가지들
들고 들어 왔습니다.
침적에 떡 쌀을 가절
러 온상 싶어서 겁이
더러웠습니다."



39. "괴랄 큰 바가지가
속 들어 오더니 쌀을
자꾸 퍼 뱉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속에서 파묻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밤으
로 나갈 기회는 갈아서,
화약을 지고 불로 뒤
어 뜨는 적으로 바가
지 속에 숨었습니다."



40. "불기러나 쌀을 퍼
오 밥을 쓰였는데, 소
림이 식모는 눈치를
못 피웠을 뿐 아니라,
꽃잔 문을 나서자
가 날려지 몸을 눌러
모양지는 것도 몰랐습
니다. 그때서 소림은
진심으로 욕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41. "다들 밥 근심도 적
데 버러가 싶다고 하
고 그 길로 집에 와서
머리를 긁어 누웠습
니다. 그러자 떡 상편
회운지도 티도 쓰며
피웠삼기로 오늘 이
제 늦은 한두는 드러
머 온 걸립니다. 그런
데 동구 밤에서 이상
한 것을 보았습니다."



42. "아주 잠잠지 차
침 한 시달이 동구
밤에서 우리편저리
에, 수상쩍이 한 동
승이 동정을 살피며
나아가자 배 무슨 욕
같은 것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가가서 보니, 그만
에 사일대로 적혀
있습니다."

43. 서동지는 그 예길 들
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상김
마미에워서 그런 교지
를 내리셨다구... 황송
하지 하여다... 그게 공
침이 뭐 있다구... 밤이
부 사만 주를 하사하
시다니 그런 황송할데
가... 어찌가 어서 일이
어찌."



46. 이 때, 일주 중에 젊
은 귀들은 이러한 경사
를 오지부지 지낼 수
없다 고 상의한 후, 서
동지를 찾아가서 크게
속히 한 치를 해야 한다
고 서동지에게 건의하
였다. 그러나 서동지
는 미용이 없어 나
쁘으므로 완고하게
반대 하였다.



44. 서동지는 침적이
뒤를 재촉하여 그 교지
가 담긴 곳으로 갔었다.
그 곳은 전 날 흉년으로
곡식이 귀할 때, 서
동지는 수 천 마리의
일주으로 하여금
적국의 큰 창고
에서 쌓인 쌀을 모조리
몰리게 하였다 드디어
크리한 용도가



47. 젊은이들은 못마
땅해 하며 있을 때,
서동지의 부인이 젊은
이 편에 가담하여 서
동지를 변교
하였다. "그대 서
동지의 자항을 넘기
선전해야 출겠거늘,
비유로
제로 그만 두라니
필달
수 없
이 초대장을 쓰게
하였
다."



45. 나라에 알려졌음
으로, 서동지에게
비술과
한두 사만 주를 내
립
졌다. 서동지는 그
교지를
어처다 일주
를 배
고
살림을
만
아
니
라
일
로
적
경
망
이
라
생
각
하
고
모
조
리
로
몰
리게
할
데
놀
고
항
물
을
몰
고
계
사
까
지
거
었다.



48. 밤을 새워가며 수
천 장의 초대장을 써
고
각
처
에
보
내
고
는
일
가
진
척
에
저
는
본
근
이
고,
이
웃
간
의
침
한
정
승
물
에
저
도
바
침
없
기
보
였다.
그
럼
이
니
밤
을
어
거
지
함
고
은
이
물
려
어
거
지
지
어
않
이
물
려
말
았다.
(계
속)



소년과학사 (2)

= 조선을 중심으로 한 과학사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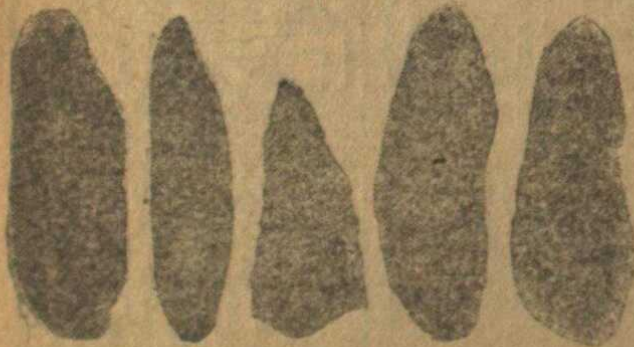
홍이섭



3 도구(道具)의 제작 ①

인류의 조상들이 가장 오랜 옛날부터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던 사실(史實)은, 근자에 와서 고고학(考古學)이란 학문이 발달됨에 따라, 점차 그 제작 방식과 제작된 도구의 종류,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 도구 제작에 관한

조선은 대체로 할경북



제 1 도 (타제석기의 모양... 할북 울기 송영동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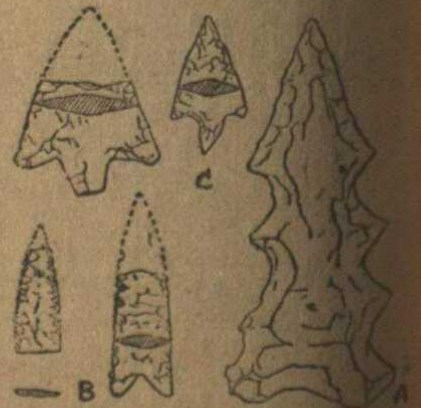
돈 쪽에서는 타제(打製) 석기(石器)가 많으며, 그 대신 마제(磨製) 석기가 적다. 그러나 다른 지방은 이와 반대로 마제 석기가 흔하고, 타제 석기가 드물다. 여기서 잠깐 타제 석기에 대해서 얘기해 두겠다. 이것은 석기 제작에 있어서는 구석기(舊石器)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먼저 자연석(自然石), 즉

무두들맹이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나무 껍질도 베끼고, 짐승 껍질을 찢는데 좀더 예리(銳利—날카로운)한 도구가 필요하게 됨에서, 원래의 자연석을 역시 돌로 때려 다듬어서 손에 잡기에도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그 시대

에서 좀더 발달되며, 신석기(新石器) 시대라고 할 때에 와서는, 먼저 돌로 돌을 때려서 다듬던 것을, 석질(石質)도 견

만들어진 것을 마제 석기라고 한다. (제 1·2 도)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하는 말은, 석기의 제작된 품을 가지고서 석기 시대를 구별해 말한 것이다.

이런 구별을 가지고, 인류의 문화 정도를 대강 정해서 알아보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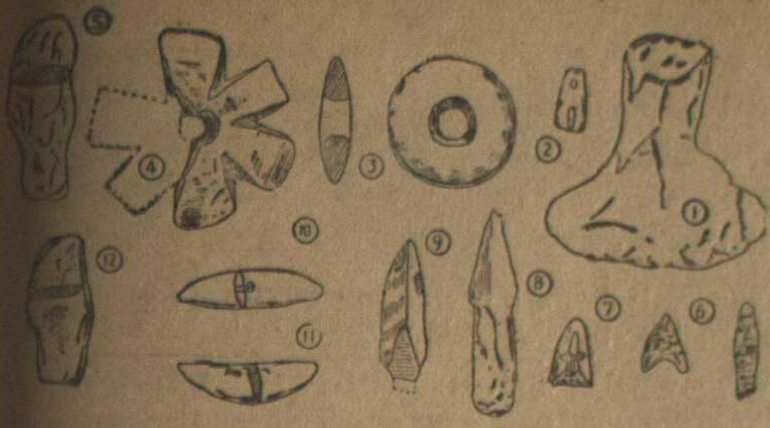


제 2 도 A·부산 부근, B·O경주에서 발견된 타제석기

다. 그러므로서, 이 도구의 제작은 곧 문화의 정도를 알려 주는 것이므로, 그 문화의 발달이 또한 인류의 과학의 발달이냐, 그 도구의 종류에

제 3 도

- ① 차가 신라대석부 (한북)
- ② 마제한도석부 (한북)
- ③ 한양석부 (한북)
- ④ 옥부형석부 (한남 미천리)
- ⑤ 라제석도
- ⑥ 라제석부 (한북)
- ⑦ 마제석부 (한북)
- ⑧ 라제석부 (한북)
- ⑨ 마제석부 (경주)
- ⑩ 라제석도 (한북 동림진)
- ⑪ 마제석도 (경주)
- ⑫ 마제석도



따라서 한두 가지를 찾아 보기도 한다.
 석부(石斧)—물을정자형(丁字形)으로 깎아, 길이 30cm 가량으로 매우 커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직 고고학상 석부 불로 된 도끼라고는 하나, 일본 보기에는 석부의 기보다 다른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한북(咸北) 지방에서 출토(아래는 제 2도에 맞추어 가면서 읽어라) 또 같은 석부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둥그런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이 있다. 이것은 둥그런 바깥 테가 천부 날(刃)이 서 있다. (한북(咸北) 지방 출토) 이를 지차(齒車)처럼 피어서 머리가 몇 가닥으로 편이 나간 다두(多頭) 석부란 것이 있다. 이것은 그림 제 2의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가운데 구멍에 막대를 끼어 가지고 무기(武器)로 쓰지 않았나 싶

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예(例)는 남쪽 아메리카와 뉴우기니아의 토인(土人)들이 쓰는 도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그림에 보인 석부 중에서는, 먼저 들은 것이 가장 실용된 것 같고, 둥그런 석부는 실용보다 장식품, 몸의 치레드 끈에 피어서 찬 것 같다고 얘기한 권 문학사도 있으나, 꼭 그랬는지는 모를 말이다.
 이 외에도 석도(石刀)의 몇 형태를 찾아 볼 수 있고, 도 석창(石槍), 석촉(石鏃) 등이 있다. (제 3도) 여기서 그림에 표시된 것은, 모두가 조선 안 작처에서 찾아 낸 것인데, 그 분류(分類) 구별(區別)에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분류해서 각각 이름을 붙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궁상스레 이름을 붙였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대

로 평하게, 일본 알아 들게 해야 할 줄 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꼭 먼저 사람들이 이름 붙일때로 좇지 않았다.
 먼저 얘기한 석기 외에도 돌집시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평평한 들쭉작 가운데가 겹시 모양으로 움푹히 된 것이다. 이런 것으로는 그저 길쭉스레 한 들에 가운데가 움푹 패지거만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마석기 시대에 거기다가 나뭇 물건을 갈던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다. 또 돌집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길이 5cm—10cm 가량의 작은 돌 한쪽에 다듬어 날처럼 이빨 모양의 날을 정밀하게 깎아 넣은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도구로 작은 돌의 작용을 함 것 같다.
 이런 석기를 사용하는 문화의 정도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이

르렀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만 썼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화의 기술(技術)을 가졌던 것을 알아 보자.
 맥키트(M. C. Burkitt)란 학자의 책을 보면, 인류의 문화가 신석기 시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농업을 했고, 가족(家畜)을 기르고, 길그릇(土器—로기)을 만들 수 있으며, 금속(金屬)을 녹여서 말리 드구를 만드는 법을 알 명했다.”고 말했다.
 이때는 돌을 잘 갈아서 도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공통된 조건이 조선에도 있었던 것이다. (농업,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다.) 다음 길그릇이라고 불림시 로기 제작에 대해서 보면, 조선은 만주(滿洲)와 우리 반도(半島)안으로 걸쳐 된 계통

(系統)의 토기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된 것은 살이 두껍고, 무늬(紋)가 없는 것으로, 만주와 조선 반도에 걸쳐서 발견된다. 빛은 진흙 빛으로 (혹은 진흙빛에 갈색이 약간 섞인 빛도 있다.) 된 흙은 퍼 거칠어서, 고운 흙에 차돌(石英), 무두돌맹이(長石) 등의 잔 부스레기 모래가 섞이었으며, 운모(雲母) 딱지가 섞이기



제 4 도 초기무문토기 (황북 원진 유물) 발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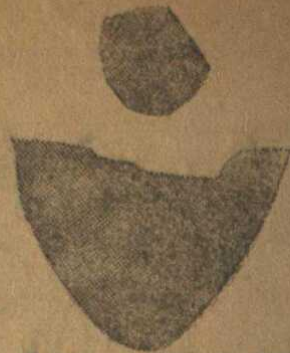
드렸었으며, 이것은 반드시 무늬가 없지 않고, 그릇 아가리 가장자리(口緣) 또는 밖으로 그 언저리에 손톱 자국으로 무늬를 잡은 것도 있고, 또는 아가리 속이나 밖에서 펴터 풀어 작은 구멍을 한 줄도 뚫기도 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무늬다. 그러나 이 종류 토기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어느 것이든 손잡이가 있는 것이다. (제 4 도)

다음 빛(漆)을 바른 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고고학 방면에서 절목문토기(櫛目紋土器)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된 보다는 훨씬 고운 진흙에 모래, 석면(石棉), 운모 등을 섞어서 살집게를 얇게 빚어서, 모양은 상수리(橡實)처럼 밑둥머리가 둥그렇다. 이런 것이 흔하고, 가다가는 밑이 편편하기도 하나, 대체로 손잡이는 없다. 빛은 진흙빛에 갈색 섞인 것이다, 그 분포(分布)는 구라파로 스웨덴(瑞典)·핀란드(芬蘭)·북부 이세아로·바이칼 호(湖) 서쪽에서 몽고(蒙古) 고원으로 미쳐 어떤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광범한 연락을 갖고 있다. (제 5 도)

그 다음에는 곱고, 좋은 진흙으로 살을 얇게 하고, 결을 깨끗이 닦아서 표면(表面)을 곱게 한 후 황갈색(黃褐色) 단(丹)을 바르고, 또는 그 위에다 무늬(紋)를 크리기도 한다. 조선에서는 무문토기와 함께 나오며 특히 함경북도에서 그 좋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제 6 도)

이런 토기 제조의 기술도 신석기 시대에서 좀더 발달 되어, 금속(金屬)이 나타나서 석기와 함께 사용하던, 금석병용기에 와서는, 결과 적 발달된다. 전보다 훨씬 절묘한 제조 방법을 갖게



제 5 도 절목문토기의 입배(경 긴 암서리 발견물)



제 6 도 단도제비토기 (황북 원진 유물) 발견물

된다. 이 “금석병용기”란 학술용어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들으시었을 줄 안다. 원래는 이탈리아와 이스파니아의 고고학자들이 자기네 지방에서 일부 사용하던 말이,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토기 제작법의 몇 가지를 소개 하겠다. (1)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 모양으로 남겨서 만드는 방법—이것은 가장 원시(原始)의 제작 법이다. 지금도 아프리카 토인들이 이 방법을 쓴다. (2) 다음은 진흙에다 모래를 섞어서 둥그렇게, 굴뚝처럼 빚어서, 먼저 밑바닥을 빚어 놓고, 그 위에다 차례로 쌓올려서 그릇을 만든다. 오늘날 아프리카·남아메리카 토인, 크릴아일랜드 (千島—이 이름은 일본 사람이 자기네 영토이었던 때 부르던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서양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의 아이누들이 이 방

법을 쓰며, 석기 시대의 유물(遺物—고고학에서 전에 남아 있던 물건을 유물이라고 한다.)에도 이런 것이 있다. (3) 이것은 먼저 빚과 비슷한데, 밑바닥에서부터 진흙을 채끼출처럼 빚어가지고 딱딱처럼 굳어 올리는 것이다. 밑에서 들어 올리면서 안팎에서 손바닥, 또는 비취개 같은 나무쪽 등으로 만지고 다듬어서 그릇 모양을 낸다. (제 7 도) (4) 진흙머리를 빚어 가지고, 형질이나, 질적리 같은 것으로 싸 가지고, 만두 껍질 빚이듯이 그릇 모양으로 빚어 건다. 여기서는 나뭇속에다 무늬를 채겨 가지고, 그것으로 결 모양을 두드려 만들어서, 그 나뭇 속의 무늬가 그릇에 남게 되었다. 이 방법은 조선에서는 꽤 오래 사용되며, 삼국시대 뒤에도 이런 제조법으로 만들었던 흔적(痕跡)을 볼 수 있다고 한다. (5) 먼저 세방구(三방구)라든지, 방구(方口)를 만든

이 가지고, 그밖에는, 안
 다가 진흙을 발라서 그
 것만 만든다. 다 만든 뒤
 에 찰주리는 대버리게 된
 다. (6)이것은 널판 위
 에 그릇 만들 흙 덩이를
 놓고 그 판을 돌리면서
 그릇 모양을 만들어 가
 는 것으로 뒤에는 그 판
 을 받판에서 저절로 들
 어지게 하고, 손으로는

자유롭게 그릇을 만져가
 며, 그 모양은 꼭게 다듬
 었던 것이다. 이런 제작
 법은 석기시대보다 금석
 병용기에 와서 도톰이 나
 타난다. 조선에서는 그
 실례(實例)를 김해(金
 海), 양산(梁山 - 경상
 도), 경주(慶州), 대구(大
 邱) 등지에서 꼭게 다
 듬은 모양을 화설히 인

될 때, 또한 같은 흙덩
 이를 가지고 다른 일상
 의 도구도 만들었던 것
 이다. 토제(土製) 술갈,
 그물(綱)의 추(土製繩)

이 길쭉한데 가운데에 끝
 이보 구멍이 뚫린 진구술
 (管玉)모양이 것도 있다.
 (이번 얘기는 여기서
 자르기로 한다. 다음 이



세종도 찰리를 틀어서 토기를 만드는
 모양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
 은 곧 그릇 굵
 는 기술에 있어
 일단의 진보다.
 우리들의 조
 상들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게



펜마이크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들

방수차(紡繩車 - 무엇이
 든지 찰 때에 다는 추)를
 사용하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 양식(樣
 式)이며, 또 접하여 어
 예도 주판(算盤) 알 같
 이 된 것이나, 손가락 같
 울터 얘기하겠다)

곤충 잡는 법과 표본 만드는 법

국립 과학 박물관 관장 조복성

곤충을 거르는 것도 재미 있
 는 일이지만, 실지로 들어가
 상으로 가서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 곤충을 잡으며, 잡은 것
 을 표본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것도 재미 있고도 보
 장한 일이다. 잡는 동안에 곤
 충의 나는 법과 살고 있는 곳
 이하는 물건 등,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
 으니, 그 어찌 재미 있는 일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물드 건
 강하여질 것은 사실이니, 여
 러 분은 이번 여름 방학을 힘
 되게 보내지 말고 자연과 친하
 고도 관찰하기 위하여 곤충

잡이를 해보자.

(1) 곤충 잡이에 필요한 기구

- 가. 포충망
- 나. 독 병
- 다. 삼각포지 (三角包紙)
- 르. 권셋트

(2) 곤충 잡는 법

곤충 잡이 하는 기구가 준비
 되면, 이것들을 들고 곤충을
 잡으러 떠난다. 처음부터 먼
 곳에 가지 말고, 자기가 사는
 동네 부근의 산이나 들에 가서
 잡기 시작할 것이다. 포충망을

들러 나비가 들어 가면, 큰 포
 충망의 입을 땅에 대고 망의 끝
 을 한 손으로 들면, 나비는 땅
 으시 위로 날아 올라와 붙으니,
 그 때에 나비의 가슴을 조금 힘
 을 들어 쥐면, 큰 송이 딱히 죽
 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것을 권셋트로 집어 살짝 보지
 에 넣어 보관한다. 그 외의 벌
 레들이 땅에 들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독병
 속에 집어 넣는다. 포충망을 잡
 초가 많이 난 뉘를 잘어 뒤두
 르다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
 지 초그마한 벌레가 무수히 들
 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
 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방법
 인데, 여러 종류의 곤충을 손
 쉽게 채집할 수 있다. 예우기
 종류는 잡으면 입에서 감칠 감

새소식

핀랜드의 워리넨 교수 나무로 설탕을 만들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 N 식량 농업 기구 목재 화학 위원회 (食糧農業機構木材化學委員會)에서, 핀랜드 국립 공업 시험 연구소 화학 실험 소장 C.V.A. 알트·워리넨 교수는, 우리나라는 목재(木材)로부터 경제적으로 식

용(食用) 설탕을 만드는 법을 발명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설탕의 기본은 이 회의에서 보였는데, 세계에서 이 이름난 목재 화학자들이 들어 있는 목재 화학 위원회의 각국 대표들이, 이 설탕의 맛을 보고 모두 워리넨 교수를 경

찬하였다고 한다. 그전까 워리넨 교수의 발명의 하면, 이 때까지는 목재에서 나온 설탕이 실용적(實用的)으로는, 알콜, 효모(酵母) 등, 공업용으로만 쓰였던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 방법이 온 세계에 퍼진다면, 뜨거운 열대지방에서만 생산하던 설탕을, 추운 나라에서도 만들어, 남의 나라에서 비싸게 살 것 없이 쓰게 될 것이라고.

“아협 상타기 동요, 작문” 상장과 상품 전달식

“아협”에서 세 번째 모은 “상타기 동요, 작문”은, 지난 달치 “소학생”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

은 물이 나와, 독병을 더럽히는 고로 산 채로 증이에 들들 말아 병에 접어 넣어서 죽인다. 소똥이나 동물이 죽어 썩은 곳을 들추어 보면, 보지 못하던 곤충이 많이 와서 그것을 맛이 있게 먹고 있을 것이니, 핀셋으로 병에 넣어 죽인다. 그 외에 돌 아래나 썩은 나무 아래를 살펴 보면, 역시 예쁜 벌레를 잡을 수가 있다. 밤에 등불에도 여러 가지 곤충이 모여 드니, 주의하여 잡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광선에 모여 드는 곤충을 잡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산이나 들에서 불을 켜고 야간채집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딱정벌레나 송장벌레 같은 종류는, 땅에 입이 넓은 병을 묻고, 그 안에 썩은 벌레나 개구리, 물고기 같은 것을 넣어 두면, 냄새를 맡으러 왔다가, 병 속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니, 마치 함정을

파고 큰 동물들을 잡는 격으로 채집하는 방법도 있다.

(3) 표본 만드는 기구

(1) 전시판 (展翅板)

그림과 같은 것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그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 전시판의 재료는 물론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2) 곤충 바늘

이 바늘은 길이가 35mm가량인데, 지금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보통 바늘을 쓰면 곧 녹이 나서 벌레가 상하거나, 다시 바늘을 쓰지 말고, 곤충 상자 안에 솜을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두는 것이 더욱 좋다.

(3) 곤충 붙이는 대지 (臺紙)

이것은 곤충이 너무 작아서 바늘을 꽂기 곤란할 때에, 종

이에다 곤충을 붙로 붙이는 것을 말함이다. 이 종이는 소용없는 명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표본 상자

틈이 없고 표본을 먹는 벌레가 들어 가지 못하는 상자는, 무엇이든지 관계 없다. 필수 있는 대로 재물을 의용하는 것이 좋다.

(5) 나프탈린

표본 상자에 나프탈린을 넣어 두지 않으면, 힘들어 만든 곤충을 다른 벌레가 들어 가 표본을 전부 먹어 버리고 만다. 가루 나프탈린이 좋고, 질수록 많이 넣어야 한다.

(4) 표본 만드는 방법

(1) 나비 표본을 전시 하는 법

나비 가슴 중감을 바늘로 꿰고 전시판 붙여야 한다. 꽃는다.

그러나, 뽑힌 이에게는 큰 상장과 상금과 그리고 상금을 학교를 위하여 보냈다.

그런데 올해 가장 좋은 작품을 많이 보내어 "학교상"을 탄 국립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국립 학교에서는 지난 6월에 전국 학생을 모아 놓고 상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동요와 작문을 좋아 독등을 한 서 양희양을 비롯하여 일곱 사람 입상자는, 동무들의 우뢰 같은 박수 속에서 선성립으로부터 상품들을 받고,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이요, 어린이 회의 회장인 서 양

희양은, 올해 빛나는 졸업을 하여 곧 사범 대학 부속 중 학교에 입학한다고.

노오벨 평화상(平和賞)은 과연 누가 탈까?

서기 1896년 스웨덴 사람, 다이나마이트의 발명가요, 또 위대한 자선가(慈善家)인 노오벨의 유언(遺言)으로 만들어진 노오벨상은, 학술(學術)을 장려(獎勵)시키기 위한 세계적 상으로, 물리학상(物理學賞), 화학상(化學賞), 의학상(醫學賞), 평화상(平和賞) 문학상(文學賞)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 해마다 세계에 위

대한 공헌을 하든가, 세계적 평명을 하든가 하는 사람 다섯을 뽑아 상을 주는 것인데, 올해는 네 가지 상은 다 결정되었고, 평화상 하나만 남았었는데, 이번에 이 상을 탄 분 18명의 후보자가 지명(指名)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로루벤 미국 대통령, 노련의 스탈린 수상, 모오마 법왕(法王) 12세(世), 체코소보바키아의 베네슈 대통령도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힘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상을 받게 될는지, 기다려진다.

그리고 날개가 양쪽 널판에 달게 하고, 골짜기 양쪽에 가늘게 벨 종이를 바늘로 꿰는다. 왼 손으로 종이를 들고 왼쪽 날개를 누르고, 오른 손에 바늘을 쥐고 앞날개를 가만히 그림과 같은 정도로 위로 올리면 된다. 뒷날개도 역시 그림과 같이 보기 좋게 펴고 바늘을 꿰어 움직이지 않게 한다. 오른 날개도 역시 왼 날개와 같이 하되, 좌우 두 앞날개의 뒷줄기가 일치선으로 되어야 한다. 날개 끝에도 또 종이를 대고 바늘을 꿰는다. 측각과 배도 역시 구부러지지 않게 보기 좋게 정돈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한 주일만 지나면 표본이 정리한 모양으로 말라 굳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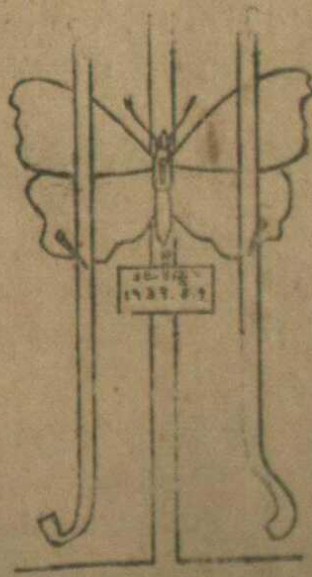
(L) 잠자리 종류 표본

날개를 펴는 법은 나비와 근사하나, 이 좁은 배가 건조로 마르면 붙어지기가 쉽다. 그러므로 배 끝으로부터 송낙줄 말은 것을 끼어 놓으면 모양이

예쁘다.

(D) 메뚜기 종류 표본

이 종류는 배가 커서 색이



(표본 만드는 방법)

가 쉬운고로, 배를 잘라 내장을 꺼내고, 방부제 약을 바른 종이를 접어 넣어 두면 두껍다.

(R) 갑충(甲虫)에 바늘 꿰는 방법

갑충류에는 반드시 오른쪽 날개 중간보다도, 앞쪽 중간에다 바늘을 꿰어야 한다. 만일 날개와 날개 사이에 꿰으면 좌우 날개가 비그러져서 보기가 흉하다.

(O) 작은 곤충 표본

이것은 메뚜기나 풀도 붙인다는 것은 먼저 설명되었다. 표본 만들 때에는 반드시 곤충 채집 장소, 채집 날짜, 채집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표본과 같이 붙여 놓아야 한다. 이것을 기입한 표가 없으면, 한층이치도 가치가 없는 표본이 되는 것이다. (또 부침 전생 지은 "곤충 이야기" 책에서)

少年三国志

(7) 박 태 원

그림·김 기 창

제5장 천리(千里)를 간다

一, 동령 관(東嶺關)

조 조와 작별을 지은 뒤에, 관운장은 두 부인의 탄 수레를 보호하여 앞으로 나갔다.

월채 늦게 떠났고, 또 증로에서 지체가 되어 이 날은 몇 십리 못 가서 날이 저문다. 운장은 조그만 촌을 찾아 들어 가서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다.

밤으로 나온 주인은, 그가 바로 안양·문 추를 베인 관 장군이라고 알자, 곧 정중하게 안으로 맞아 들어, 그 대접하는 품이 매우 은근하다.

운장이 주인의 성명을 물으니 조 화라고 대답하며,

“저의 아이 호 반(胡班)이 지금 형양 태수 왕 식(滎陽太守王植) 밑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있습니다. 죄송 하오나 지나실 길에 편지를 좀 건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한다. 운장은 섬섬히 응락하였다.

이날, 운장이 두 부인을 모시고 떠나 한 관(關)에 이르니, 곧 동령 관(東嶺關)이다. 관을 지키는 경수 공수(孔秀)가 군사 오

백 명을 이끌고 나와서 그를 막으며 묻는다.

“장군은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북 으로 유 장군을 뵈오러 가는 길시오.”

“승상의 문빙(文憑)이 있으십니까?”

“월채 갈 길이 바빠서 미처 얻지 못하였소.”

“그렇다면 사람은 허드르 보내서 한번 승상께 여쭙어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소?”

“그래도 정한 법도(法度)가 있어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로는 나를 못 내어

보내 주겠단 말이오?”

“저성 나가고 싶거든 두 부인을 인제(人質)로 두고 가시구모.”

그 말에 운장은 크게 노하였다.

그는 곧 말을 재쳐 달아들자, 한 칼에 공수를 베어 말 아래 거꾸러뜨렸다. 이를 보고, 군사들이 어지러이 도망친다.

운장은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웨쳤다.

“내가 사정이 어쩔 수 없어 공수를 죽였거니와, 너희들은 부디 나중이라도 승상께 말씀을 잘 여쭙어 나오.”

당부하기를 마치고, 운장은 두 부인의 수레를 모시고 관을 나가 낙양(洛陽)을 바라보고 떠났다.



二, 낙양 관 (洛陽關)

낙양 태수 한 복(韓福)은 이 소식을 전하여 듣자, 크게 놀라서 급히 수하 장수들을 모아 놓고 의논하였다.

맹한(孟坦)이란 장수가 나서서 말한다.

“안양·문추를 죽인 관운장을 힘으로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거든, 소경(小將)이 나가서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관앞으로 고일 것이니, 그때 장군은 문열에 숨어 재촉다가 칼을 쏘아 죽이도록 하십시오.”

한 복이 그 계고를 좇기로 하였을 때, 군사가 들어 와서 보고하니, 관운장의 일행이 이미 관앞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 복은 곧 군사 일천을 거느리고 나갔다.

“어 곳을 지나려는 사람이 누구요?”

운장은 마상에서 몸을 굽혀 예를 베풀고,

“나는 진수정주 관우요. 하북으로 유장군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 승상의 문병을 가지셨소?”

“질이 바빠서 미처 못알았소.”

“문병이 없다면, 아예 이 곳을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오!”

운장은 노하였다.

“맹한 권의 공수도 그러다가 내게 죽었느니라! 너도 죽고



싶어 이러느냐?”

한 복이 소리를 가다듬어,

“귀 나와서 저 늙은 사모 잡을고?”

한 마디 뉘치자, 맹한이 말을 쳐쳐 대답한다.

운장은 수레를 뒤로 물린 다음 곧 마주 달려 들었다. 서로 어울어져 싸우기 삼십이 못되어 맹한은 문득 말 머리를 돌리어 말아났다. 그는 한 복과 머리 맞추어 두었던 때로, 운장을 관앞까지 꼬이며 한 것이다.

그러나 척모마는 빨랐다. 마침내 맹한이 관앞에 이르거 전에, 운장은 벌써 그를 한 길에 버리

버렸다.

바로 그때다. 서서 소리가 울리며 화살 하나이 날라 와서 운장의 왼편 팔에가 깊이 꽂힌다. 문열에 숨어 있던 태수 한 복이 배를 놓치지 않고 칼을 쓴 것이다.

운장은 입으로 화살을 물어 먹고, 그대로 다시 말을 몰아 한 복에게도 달려 들었다. 한 복은 곧 말 머리를 돌리어 말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운장의 정동모가 한 번 빛나며, 그의 몸은 두 등장이 나고 말았다.

三, 기수 관 (沂水關)

다음은 기수 관이다.

이 곳은 지키는 정수는 맹희(孟喜)이고, 유성수(流星鎗)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낙양 소식을 전하여 듣자, 그는 마침내 한 계고를 생각하여, 관앞에 있는 진국사(鎭國寺)에다 이적어 영도부수를 베풀려 묻나중, 술잔을 던지는 것으로 관도를 삼아 운장을 해치기로 정하였다.

이윽고 군사가 들어와, 운장의 일행이 이르렀다고 보고한다. 맹희는 즉시 관에서 나가, 그를 정승하게 맞았다.

운장이, 부득이하여 곧 수하 한 복을 버린 틈을 그에게 보으

하니, 변 히는

“장군께서는 조금도 허물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승장을 꿰고 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다.

운장은 마을에 퍼그나 기며, 두 부인을 모시고, 변 히가 이끄는 대로 전국사로 들어 갔다.

변 히는 관 운장을 이미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여,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일은 공교롭게도, 그 전국사 중들 가운데 관 운장과 동향(同鄉)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법명(法名)을 보 정(普淨)이라 한다.

보 정은 운장을 구하려고, 그의 앞으로 나와 차를 걸한 다음, 변 히가 보지 못하게 개 허리에 차고 있는 제도(戒刀)를 손으로 들어 보이고, 다시 은근히 운장에게 눈짓을 하였다.

운장은 그 뜻을 짐작하고, 변 히를 따라서 법당(法堂)에 배를 놓은 연석으로 나가자 한 마디 불었다.

“변 군이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청할 것이, 과연 호의(好意)로 할 일지요?”

변 히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운

장은 한 편 휘장 뒤에 도부수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곧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네, 이 놈!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변 히는 일이 누설 될 줄 깨닫고, 급히 수하 군관(軍官)들을 불렀다. 그러나 운장은 칼을 빼어 군사들을 쳐 죽이고, 종인에게서 청룡도를 받아 들자, 달아나는 변 히를 뒤 쫓아, 마침내 그를 두 동강에 내었다.

운장이 남은 군사를 꾸짖어 물리치고, 보 정에게 깊이 사패한 다음에, 다시 수레를 모시고 형양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四, 형양 관(滎陽關)

운장의 일행이 형양에 이르자, 이곳 태수 왕 식(王植)은 짐짓 예를 극진히 하여 성 밖까지 나와서 그들을 맞았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시고, 내일 떠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여, 운장의 일행을 관역(籠驛)으로 청하여 들인 왕 식은 밖으로 나오자, 가만히 종사관 호 반을 불러서 분부한다.

“관 운장이 초 승장을 배반하고 허도를 떠난 뒤로, 서러 곳 태수와 또 많은 장수관을 죽였으니 그 죄가 크나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체 무예가 남에게 뛰어난 우리 쪽으로는 당할 도리가 없으니, 내가 오늘 밤에 군사 일천 명을 거느리고 관역을 에워싼 다음, 밤이 깊기를 기다리어 일제히 불을 질러서, 안에 든 사람은 누구를 물을 것 없이 모두 죽이도록 하여라. 나도 군사를 거느리고 뒤 따라 나가겠다.”

호 반은 그의 말을 들떠 나와, 곧 군사들에게 영을 전하고, 오직 밤이 들기만 기다리다가, 문득 혼자 생각이다.

(내가 관 운장의 이름은 들은 지 오래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먼 빛으로라도 한 번 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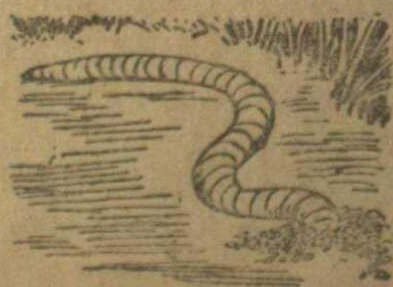
그는 즉시 관역 안으로 들어 갔다. 발 소리를 죽이고 대청 아래로 다가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운장은 이 때 마침 당상(堂上)에 등불을 밝히고 앉아,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보고 있다.



지렁이의 생활

지렁이는 떠도 없고, 손도 다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대신으로 지렁이는 마디마디에 있

는 보통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 있는 벌로서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입을 있지만 숨은 피부로 쉬는 까닭에 언제나 그의 몸은 촉촉해 있습니다. 눈도 코도 귀도 없고 모든 것을 피부의 작용으로 세민(銳敏)하게 감각(感覺)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마리의 지렁이를 두 토막으로 잘라도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속의 우거머 보다가, 오 반
 이 저도 모르지 집 밖에 내어,
 “알으로 인물(人物)이서모구나
 !”
 하고 한 마디 중얼거리니, 순
 장은 고개를 들어 묻는다.
 “뉘 사람인고?”
 오 반은 곧 알으로 나가 절하
 고 지웠다.
 “일할 때수 부하의 풍사관 오
 반이 올시다.”
 순장은 다시 불렀다.
 “그러면 바로 리도 성 밖에 사
 는 오 화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순장은 곧 종언을 불러, 명장
 직에서 오 화의 사할을 꺼내 오
 반 하여, 그에게 주었다.
 오 반은 받아서 읽고 나서,
 (과카르던 내가 큰 일을 저지
 를 벌 하였구나!……)
 저모르게 탄숨을 쉬고, 곧 순
 장에게 가만히 고하였다.
 “참 식이가 장군을 폐치리 하
 여, 이미 군사를 불러서 관역
 을 데렸으니, 정군은 어서 탄
 사 바빠 이 곳을 떠나시도록
 하십시오. 성문은 제가 열어
 드리오리다.”
 순장은 황망히 갈 듣고 말에 울
 리 두 부인을 수레에 태워 모시
 관역을 나섰다.
 성 밖에 이르니, 오 반이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린다. 순장은 수
 레를 불러 같이 그곳을 빠져 나갔
 다.
 그러나 오리를 미처 못가서,
 배 문득 말굽 소리가 요란히
 리며,
 “네 이 놈! 어디로 도망하느
 냐?” 크게 웅치는 소리와 차음

동요 미루나무 진요

뛰 먹고 립는지
 키다리 미루나무

사사장할 혼자서
 무슨 제만지

머리 끝에 까치 깃
 이고 새시

하늘에 하늘에
 구름을 불러

너울너울 춤을 추며
 구름이 지나면

흔들흔들 어깨춤이
 구성진 미루나무

기침 없이 자라시
 내리다 보는

자유가 그리워서
 홀로 솟은 미루나무



그림·정 현웅

가까워 온다. 고개를 돌리어 보
 니, 앞 선 정수는 바로 태수 왕
 식이다.

한 순장은 크게 노하였다.

“네 너라고 일찍이 원수 전 일
 이 없는 터에, 이적하여 나를
 대히 죽어려 하는 것이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고, 순장
 은 그대로 말아들어, 한 칼에 그
 를 베어 버렸다. 그 수하의 군사
 들은 왕 식이 죽는 것을 보자 그
 때로 발걸음을 돌리어 어지러이 도
 망한다.

순장은 수레를 재촉하여 마침
 내 황하(黃河)가에 이르렀다.

五, 황하 도구(黃河渡口)

황하 도구를 지키고 있는 정수
 는 태수 돈의 부하 정수 전 기

(秦琪)다.

순장의 일행이 이르자 전 기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묻는
 다.

“오는 정수가 누구시오?”

“한수정후 관 우요.”

“어더로 가시오?”

“하북으로 형님 유 장군을 뵈
 오며 가요.”

“승상의 문명을 가지셨소?”

“내가 승상의 절제(節制)를 받
 지 않는 터에, 문명이 무슨 문
 명이요.”

“이미 승상의 문명이 없다면,
 실혹 거드랑 밑에 날개가 들렸
 더라도 이 강은 건너 가지 못할
 줄로 아오!”

순장은 크게 노하였다.

“네가 정말 내 갈 길은 막으려

“그러느냐?”

를 말을 채쳐 바로 전 기에게로 달려 들며, 단 한참에 그를 빼어 말 아래 떨어뜨리고, 군사를 꾸짖어 배를 내게하여 두 부인을 태워 모시었다.

황하를 건너니, 그곳은 곧 원소의 땅이다. 허도로부터 이곳까지 천리 길을 오며, 지나는 다섯 관(關)에서 운장은 여섯 명 장수와 또 적지 않은 군사를 죽인 것이다.

(마지 못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초조가 알면 반드시 나를 의리 없는 사람이라 하겠구나!……)

그는 배에서 내리자, 멀리 강 너머를 바라 보며 자못 감개 무량하였다.

六, 고성(古城)에서

운장이 두 부인을 모시고 다시 길을 계속하여 나갈 때, 문득 저

편으로서 급히 말을 달려 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참말 뜻 밖에도 손 건(孫乾)이다.

서주 싸움에 패하여 모두 팔팔이 흩어진 뒤로, 잠시 여남(汝南) 땅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던 그는, 바로 얼마 전에 하북으로 유 현터를 찾아 가서 머물러 있던 중에, 관 운장이 이미 허도를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현터의 분부를 받아 이렇게 증로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운장은 전정으로 반가웠다.

그는 손 건을 이끌어 두 부인에게 뵈우게 한 다음, 같이 말 머리를 나란히하여, 그 동안 지낸 일을 서로 호소하며, 다시 수배를 모시고 북쪽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로서 이들 지나, 그들 일행에는 사람 하나도 더 없었다.

일행이 산 길을 지날 때다. 문득 한 장사(壯士)가 부하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땅에 엎드리며,

“관 장군께 문안 드립니다. 부디 저희 무리를 수하에 걸우어 주십시오.”

하고 청한다.

이름을 물어 보나, 그는 관서(關西)사람 주 장(周倉)으로, 일찌기 장 보(張寶)를 따라 황건적 난리에 참여하였다가, 장 보가 죽은 뒤에 부하들을 데리고 이곳 와우산(臥牛山) 속으로 들어 와서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전부터 관 운장을 당대 영웅으로 공경하고 사모하여 마지 않던 터에, 오늘 뜻 밖에도 이곳에서 만나자,

“만약 장군께서 저를 수하에 걸우시어 보졸(步卒)이라도 삼아 주신다면, 참으로 주 장은 죽어도 다사함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청한다.

관 운장은 마침내 허락하였다.

이 것을 보고 그 수하의 무리들도 함께 따라 가겠다고 원한다. 그러나, 운장은 뒷날을 기약하여 우선 산으로들 들어가 있게 하고, 주 장 한 사람만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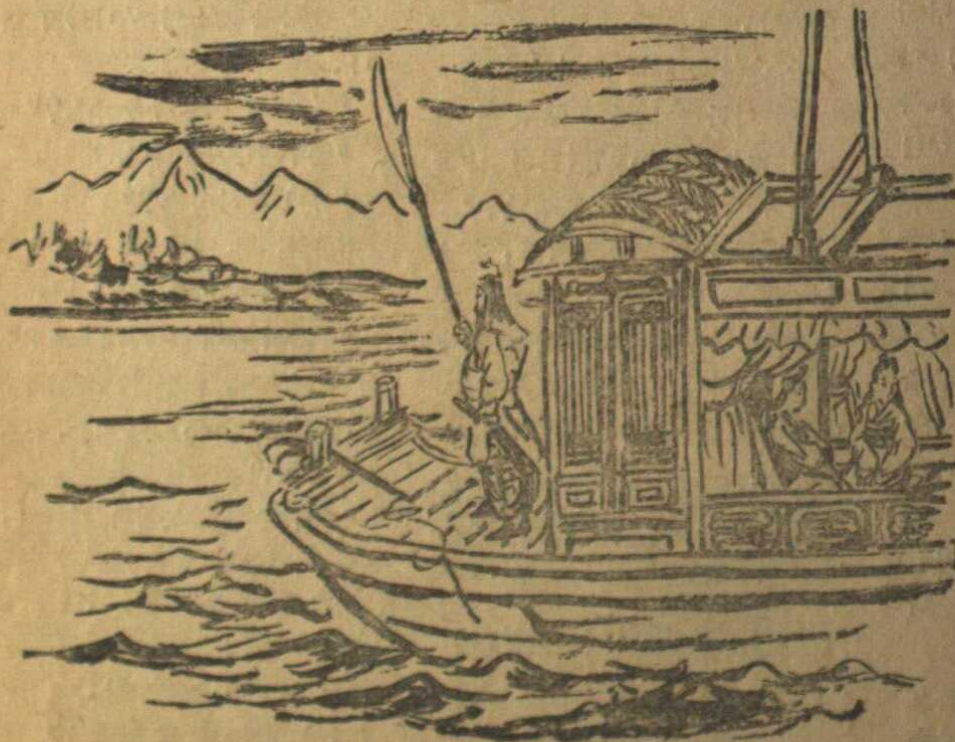
그로서 다시 수일이 지났다.

한 곳에 이르니, 건너편에 멀리 산성(山城)이 보인다.

운장은 그곳 사람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성인고?”

“고성(古城)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소?”

“본래는 이 고을 현관(縣官)이 있었는대; 비로 두어 달 전에 말끔히 쫓고 눈이 동그런 장군 하나더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와서 현관을 몰아내고 저 성에 들어 앉아, 연방 군사를 뽑고 말을 차 들이고 하더니, 지금은 아마 수하 군사가 사오천 명이나 확실하 된대지요.”

“그 장수 이름이 무엇인고?”
“장 비라고 한다던가요? 하여튼 이 군방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나 봅니다.”

듣고 나자 윤장의 기쁨은 컸다. (저주에서 서로 헤어친 1로, 아수 소식을 도무지 모르겠더니, 누가 이곳에서 서로 만날 줄을 물어나 생각하였으랴?...) 윤장은 곧 손건을 돌아 보고 말하였다.

“성으로 들어 가서 우리가 왔다 전하고, 즉시 익덕더러 나 와서 두 분 아주머님을 모시어 놀이라 하오.”

“손건은 말을 달리어 성으로 갔다.

그러나 장 비는 손건에게서 이야기를 듣자, 도리어 노기가 등등하여, 곧 갑옷 입고 루구 쓰고 창 들고 말에 올라, 일천 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성문 밖으로 달려 나갔다.

손건은 뜻 밖의 장 비 거동을 보고, 한 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 편으로는 의아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 까닭을 미처 물어볼 생각도 없다. 그는 다만 장 비의 뒤를 따라 저도 쫓아 나갔다.

방에서 거나리고 있던 윤장은 장 비가 말을 달려 오는 것을 보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들고 있던 청룡도를 주창에게 맡기고, 곧 마주 말을 달리어 나가서 맞으려 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뜻 밖이다.

장 비는 고리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벽력 같이 지르며, 곧 창을 들어서 윤장을 찌르려한다.

윤장은 깜짝 놀라, 연방 창끝을 피하며 소리쳤다.

“아우야! 네 이게 무슨 짓인고? 전에 우리가 세운 맹세를 너는 벌써 잊었느냐?”

그러나 장 비는 소리를 가다듬어,

“맹세를 저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 의리부등한 놈아! 대체 무슨 뚱으로 나를 와보는 것이냐?”

“네 이제하여 나를 의리부등하다고 하느냐?”

“아, 형님을 배반하고 조 조에게 항복을 한 놈이 어찌서 의리부등하지 않단 말이나?”

“그 것은 네가 사정을 잘 몰라

서 하는 말이다. 네 일으로는 이루 말하기가 어려우니, 두 분 아주머님께 내가 어찌 보이랴!”

그러나 장 비는 듣지 않고 그대로 쫓는다.

“대장부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길 도리가 있단 말이나? 내가 조 조에게 항복하고, 이번에는 또 나를 잡으려 온 것이 아니냐? 내, 너라고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사생을 결단하고야 말겠다!”

윤장은 기가 막혔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내가 만약 너를 잡으려 온 것이 라면, 어찌서 군사 한 명 한 배 띄고 왔겠느냐?”

장 비는 손을 들어 윤장의 등귀를 가리켰다.

“그림 저기서 오는 것은 무엇이나?”

윤장이 고개를 돌리어 보나, 과연 리물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곳에 한 배 군사가 달려 오

★유명한 소년 소설★

프린터어스의 개

조동연 번역·김 용준 그림

어디 분도 잘 아시는, 어린 예술가 델르와 파트리슈의 눈물겨운 이야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독자를 가진 소설이 이제야 여러 분 앞에 그 전부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더우기 김 용준 선생의 고상한 그림은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50 원
성문사 발행

이화 여자 대학 교수

김 매리 선생 지은

어린이 피아노책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쉽고 빠르게 피아니스트가 되는 좋은 교습서. 김 이환 선생의 그림이 쓰인 책이었습니다.

책값 300 원

아침 발행

때, 바람에 나부끼는 가로(鐵網)는, 정녕 조 조 글씨가 물리쳐 앉는다.

장 비는 크게 노하여,
“네 이제 또 할 말이 있느냐?”
하고 다시 장관사모를 고쳐 잡고 제르려 한다.

윤장은 확망히 손을 붙어 이것을 멈추고,

“잠깐만 잘아라! 네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내가 저기 오는 경수를 베어서 내 진심을 보여 주마!”

장 비가 말한다.

“네 과연 그렇다면, 내가 세 번 복질 동안에, 오는 경수를 베야만 하느니라!”

윤장은 옹너하고, 주 장에게서 침룡도를 받아 붙였다.

—계속—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 ▲종사관 (從事官)……지방관에게 발린 관현.
- ▲관 (關)……관문(關門). 경수가 지키고 있어 아무나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한다.

가 지키고 있어 아무나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한다.

▲문필 (文憑)……승거되는 서류.

▲아뢰……절대(絶對)로, 영리

동요 내 동생

시울 창신 국민교 2년

정 지 영

동생 동생 내 동생은

심술쟁이죠

우리들이 놀리려는

막매됩니다.

어머니가 양과자를

사오시려는

저혼자만 먹는다고

심술부리죠.



소학생 작품집

동요 시 넷 물

시울 북성 국민교 4년

정 부 영



말게 말게 흐르는 시냇물에는
벌레가 손님노릇 하고 갑니다.
간들간들 줄며 가는 벌레손님
바위에 부딪쳐 잠을 깬다.

달달달달 흐르는 시냇물은
빛스며 땀추어 노래합니다.
줄러가는 시냇물 낙엽땀속에

은실금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동요 우리 학교

시울 북성 국민교 4년

한 인 수

즐물라고 빛나는 우리학교는
나무없는 벌건산 옆에 커고서
이름은 빛나요 북성 국민교

즐물라고 위대한 우리학교는
녹장은 철모를 활데 안고서
이름은 위대해요 북성 국민교

어머 본 소학생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동요,
그림, 습자 등 무엇이든 좋
습니다. (전정실)

- ▲수취(受取).....활어(活魚)를 캐어 잡
는 것이름.
- ▲유성주(流星鎗).....무기(武
器)의 이름.
- ▲동향(同鄉).....고향이 같
는 것.
- ▲법명(法名).....종의 이름.
- ▲계도(戒刀).....종이 가지
고 있는 칼.
- ▲법당(法堂).....불상(佛像)
을 모신 절의 전각(殿閣).
- ▲호의(好意).....좋은 마음.
선입한 마음. 선의(善意)라고도
한다.
- ▲누설(漏泄).....비밀(秘密)
이 들어나는 것.
- ▲집짓.....일부러.
- ▲편역(館譯).....여객(旅客)
을 채우는 집.
- ▲당상(堂上).....대청 위.
- ▲인물(人物).....남모따 뛰
어날 사람.
- ▲도구(渡口).....나무. 장가
의 배가 드나드는 곳.
- ▲감개 무량(感慨無量).....
힘 없이 느껴서 탄식하는 것.
- ▲장보(張寶).....제 1장에
나왔던 황건적(黃巾賊) 괴수 가
운데 한 명.
- ▲현관(縣官).....고을의 원.
- ▲노기가 등등하다.....극도로
노하다.
- ▲의리부동(義理不同).....의
리에 어그러지는 것.
- ▲사생 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돌아 보지 않고
이주(伊周)를 내는 것.
- ▲기호(旗號).....거의 표.

과학 공부





창경 학교는 지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부터 10년 전에 일본 시 세운 학교입니다. 그

것을 해방되던 해 11월 에 우리가 차지해서, 조선의 어린이를 가르치게 된 아주 새로운 학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지은 학교요, 또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은만큼 교사 건물도 깨끗하며, 정치도 좋고, 공기도 쾌신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될까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십년을 하루 같이 힘써 오시는 윤 정석(尹貞石) 교장 선생님과, 교감인 구주(段龜柱) 선생님, 그리고 30명이나 되시는 선생님 밑에서 2000여 명의 새싹들이 날마다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자)

★나의 당부★

서울 창경 국민 학교

윤 정석 교장

1. 적당히 운동을 하자
 깨끗한 몸에서 밝은 마음과 날씬 동작이 생기나니,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튼튼히 하자.
2. 정성껏 배우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든 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대응에 힘을 써 뒤떨어진 우리 문화를 하루바삐 세계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자.
3. 의좋은 사람이 되자
 동무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자.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도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의 재주도 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약한 힘이라도 항상 잊지 말자. 서로 합하면 무서운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 6 회 서울 창경 학교 치

동요 자장노래

4의4 합 정 완

엄마가 부르시는 자장노래에
 귀여운 우리동생 잘도 자지요
 우리엄마 자장노래 잠드는 노래

엄마 품에 꼭안겨 잠든 동생은
 지금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입벌리고 빙그레 웃고 있어요



동요 나팔꽃

4의5 오 영 속

앞뜰의 나팔꽃 아침이 되면
 고개 들고 일어나 노래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침됐다고

라라라라 라라라 나팔꽃입니다.



뒷뜰의 나팔꽃 아침이 되면
 저주빛 입을 벌려 웃음웃으며
 아가씨 도련님들 일어나라고
 라라라라 라라라 나팔꽃입니다.

작문 우리 집

4의5 오 경 원

삼팔선은 무엇일까? 삼팔선은 왜 막혔을까? 이 삼팔선이 막히기 전까지는 방학 때마다 가던 우리 집에, 아!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해방될지 만 삼년이나 되었

으니 삼팔선이 막리지 않았더
 라면 적어도 다섯 번은 갔으련
 단, 태양 우에는 천번도 가 본
 적이 없다. 방학때 가면 우리 어
 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이 반가워하던 생각을 하니, 지
 금이라도 뛰어가 보고 싶다.
 앞에는 동태바닷물이 출렁거리
 고, 뒤에는 우리 나라에서 장지

이며, 서늘한 나
 무 밑에서 어머니
 가 옛날 이야기들
 하시던, 나와 우리
 오빠는 이야기에
 취해서 정신 없
 이 들던 생각을
 하니 더욱더욱 그
 립고나.



그러나 모
 두가 꿈이다.
 나는 다만 이
 천수의 삼팔
 선이 어서 끊
 어지지만 바
 람다. 그러면
 그리운 우리

동기로 우영환 글꼴선이 솟아
 있는 그리운 나의 고향. 내게 날
 자가 있다면 금방이라도 날아
 가서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을 만나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제 여름 방학이
 가까워 오더 그 절 여름 방학
 때에 우리 집에 가서 놀던 생
 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여름 방
 학 때에 가서 재수욕하던 생각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을 만
 날 수도 있고, 예전과 같이 우
 리 집에 가서 재미 있게 놀 수
 도 있을 터이니, 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학교 교가 ㉔

조그만 도토리가 자라 참나무,
 조그만 실개천이 자라 한강물,
 우리는 자라면 나라의 일군,
 잘 배우자 잘 배우자 우리 창경!

★

연못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깨끗이 피어나는 연꽃의 마음!
 연꽃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깨끗하자 깨끗하자 우리 창경!

(윤석중 • 작음)

이 창경 국민 학교는 이번에
 전선 교육 연구 중앙 부속 국민
 학교로 지정되어, 각도 시학 선
 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이 때때로
 모어서 교육 연구를 하시기 보
 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의 특징의 하나는 2부제를 실시
 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개칠에식
 용이났다



습자 6학년 이금배

풍경 4학년 박응호



화덕 대용

수남이는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음식을 떼어 먹으려고 생각하고 휘휘 둘러 보니, 그곳을 둘러 놓을만한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걸어 가니, 마침 거기에는 나무 기둥 셋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남이는 일본 음식 배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가 너무 떨어져서 그곳을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쇠로막 세계가 있었으나, 딱하게도 이것마저 나무 기둥 세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수남이는 끝 한 켠을 내어 그곳을 둘러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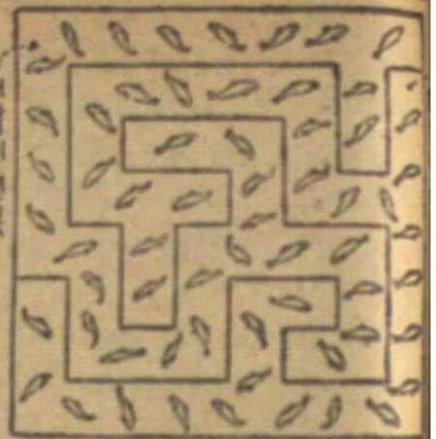
(대답은 17 페이지에)



* 누가 많은가? *

일남이 현뿔과 이남이 현뿔 어느 편이 코기가 더 많습니까? 일본일본 한 번 세보십시오.

(대답은 17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 선생님! 아너 빌리 머셀니까? 칙칙 박사 알아버지가 하도 용타시다기에 일부러 찾아 왔는데 소문과는 반편이군요. 아무래도 역시도 이왕 빌리서는 온 김이니 하나 묻고 가죠. 낮이면 살고 밤엔 죽는 것이 무엇인가요. (계성 민월 국민교 3년 이 선용)

(답) 별건 수가 딱이, 자넨 눈이 몹시 나쁜 모양이군, 그것은 때. (칙칙 박사)



(문) 어머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은 좋아라고 춤을 춥니다. 무엇인지요? (서울 배동 국민교 4년 안 성균)

(답) 실저운 문재도 다있군. 날 천치로 아나, 나무지 뭐야.

(칙칙 박사)



(문) 아주 끔찍끔찍 할만큼 큰 새가 이 세상에 하나 있습

니다. 그 많은 새 중에 이 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울 현성 국민교 5년 풍은식)

(답) 그것은 하늘과 땅 새. (칙칙 박사)

(문) 어떤 사람이 파스텔에 알감을 넣고 장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탄 사람과 부딪쳐 다쳐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알감을 물어 주겠다고 알감 수요를 물으니, 주인은 수요를 물으셨으나 새가 딱 딱히 넣으면 하나가 남고, 네 개씩 넣으면 그래도 하나가 남고, 다섯 개씩 딱히 넣으면 죽 된다고 합니다. 알감 수요는 몇 걸까요? (서울 남산동 2가 정 순일)

(답) 문제가 걸기는 내성 후 최음인

것 같고, 위술기도 최음인 것 같으니. 25 개 아니면 85 개, 그러나 장으로 팔러 가는 것이니까 85 개가 음을 것일세. (칙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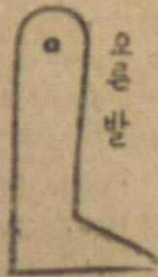
움직이는 인형

다음 그림과 같이 두꺼운 종이를 오리서, 연형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 만든 다음, 머리, 손, 발을 움직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이것을 움직여서 만 모양으로도 그려서 만들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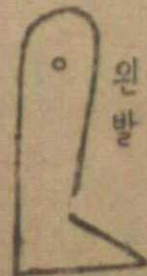


* 만드는 법 *

처음에 머리, 몸통이, 바지, 팔뚝, 손, 발을 두꺼운 종이에 그려 가지고, 오려서 그림과 같이 흰 점이 있는 바르 실을 피어서 먹감을 저우면 됩니다.



오른발



오른발



소학생 구락부



▲소학생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여러 기자 선생님 안녕들 하신지요? 저는 1호부터 58호까지 꼭 보고, 동무에게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요 "봄비"와 "봄"을 보냈자오니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수송 국민교 3년 조윤)

▲이현 여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이번에 전국 교육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그 때에 색색하게 공부한 우리들의 모양을 이현 여러 기자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흥미 있고도 아슬아슬한 "곡마단의 비밀"을 이번에 읽어 버리게 될 것을 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효계 국민교 5년 손필영)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생" 애독합니다. 처음으로 변변치 못한 작품을 하나 보냈으니 널리 양해하시고 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위하여 바쁨을 무릅쓰고 책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재미 있고 유익합니다.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십시오. (계성 원정 국민교 5년 유경환)

▲처음 뵙겠습니다. "소학생"은 우리들 소학생이 보기에 필요한 책입니다. 처음 작품 하나 보내니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첫인사 이만 그치겠습니다. 내내 안녕히. (서울 수송 국민교 3년 조성들)

△여러 분들이 보내주시는 작품은 늘 감사히 받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소학생"을 사랑하시니, 그것이 이만큼 "소학생"을 크게 자라게 한 원인이지요. 더운 일기에 몸조심하고 많이 많이 작품을 쓰십시오. (기자)

▲편집부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일기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우리들은 즐겁게 공부하고 운동합니다. 방학도 얼마 안 남고, 방학 동안에 할 과학공부, 자연 관찰이 기다려집니다. "소학생"에 "과학공작실"을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선생님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중학동 18의 2 김영근)

▲"소학생"을 내시느라고 바쁘신데도 안부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나 읽어 주십시오. 저는 인제 중학교에 가게 되니, "소학생"과 헤어지기가 하도 안타까워, 내가 상급 학교에 가서라도 틈틈이 동화나 작문을 지어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소학생" 1호부터 58호까지 같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러고 화성(火星)의 신세계(新世界)를 발견하였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면 그 내용을 속히 알려주십시오. (서울 정재교 6년 이수영)

△중학교에 입학 하신다니 참 반갑습니다. "중학교"에 올라 가시더라도 작품을 보내 주십시오. 화성이야기는 외국 신문이 전하여 준 것으로, 자세한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책상에 엮드려 "소학생"을 만들고 있으려니 이마와 놵에서 땀이 흐른다. 인제 더위로 한창인가보다. 누구나 더위에 피로울 것이다.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 실속 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오래 계속되지는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더위와 싸워 이겨야 한다. 때때로 산에도 오르고, 들에 나가 일도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리라. 땀 흘린 다음의 시원한 맛이란 얼음보다 낫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집구석이나 나무 그늘만 찾아 다니며 낮잠이나 자고 손발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면, 게으른 버릇이 생기며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위만 더 타게 되고 말 것이다. 여러 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심은정)

1946年 7月 1日 發行
소 학생 · 값 90 원
7 월차 ★ 제 59 호
 發行人 尹新章
 發行所 兒協
 1947年 9月 3日 發行 第248号
 서울 總發 2街 永樂館
 電話【電】 3372 3432 號
 總發賣 乙酉 文化社
 賣店 * 文章閣 * 鍾路 2 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年 9月 3日 發行 第248号

★ 許刊 證號 第169號 ★ 許可 日子 1946年 7月 5日 ★ 郵政 登記 證 許可 日子 1946年 4月 22日 ★

목동이

8

이영준 그림



學生朝鮮語辭典

李 水 哲 編纂
李 熙 昇 監修

중학교에 다니는 분은 물론 고등학교에 다니는 분의 공부에 열심인 여러 학생들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이란 책의 가치성을 잘 압니다. 만일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은 지금 곧 주문하시어 언젠가 절대 필요하시도록 하십시오. 막아도 막아도 모자라던 책 이번이 이것. 번째 증쇄판이 나왔습니다. 각 책상에 꼭 필요한 편이져 없으신 분으로 직접

乙酉文化社發行

서울 鐘路 永保빌딩 • 振聲 京城 325 33 號

값 250원

여러 나라의 옷



서부 인디안



인도 귀족



세비올 인디안



스모트랜드 사람



대정당 북부 인디안

아루티카 사람



헝가리아 사람



그리크 사람



튀르키예



제 부 사람



필라 사람



피어



카우보오이



중국 사람



말레이 사람

시베리아 사람



중세기 스페인 사람



엘티자비트어왕 시
황제의 궁중 사람



양귀족



17세기화란사람